

2023 통일의식조사

신냉전 한반도, 멀어지는 통일

일시 2023년 9월 26일(화) 14:00~18:00

장소 서울대학교 호암교수회관 수련홀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The Institute for Peace and Unification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신냉전 한반도, 멀어지는 통일

Program

제1부 조사결과	
14:00~15:30	사회 윤지현(서울대 생활과학대학)
	개회사 김범수(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장)
	발표1 통일의식 김범수(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장)
	발표2 북한인식 김병로(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발표3 대북정책인식 조용신(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발표4 주변국인식 김학재(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발표5 북한이탈주민인식 조현주(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토론 차정미(국회미래연구원) 정은미(통일연구원)	
15:30~15:45	휴식
제2부 심화분석	
15:45~16:50	사회 김병로(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발표1 한미관계 인식에 대한 분석 이성우(한국문화관광연구원)
	발표2 청년세대가 보는 통일: 변화와 미래 김성희(전북대학교)
토론 황태연(통일연구원) 김희정(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제3부 종합토론	
16:50~17:50	다가오는 신냉전, 멀어지는 통일 사회 김범수(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장)
	토론 김재한(한림대학교) 배종윤(연세대학교) 엄기홍(경북대학교) 전병길(통일과나눔)
17:50~18:00	폐회

Contact

기타 문의사항은 담당자 kjkl3@snu.ac.kr 로 연락 바랍니다.



사전참가 신청



YouTube

목 차

● 세션1 | 조사결과

발표1 김범수 | 통일의식

발표2 김병로 | 북한인식

발표3 조용신 | 대북정책인식

발표4 김학재 | 주변국인식

발표5 조현주 | 북한이탈주민인식

토론 정은미 | 통일의식, 북한인식, 대북정책인식

차정미 | 주변국인식, 북한이탈주민인식

● 세션2 | 심화분석

발표1 이성우 | 한미관계 인식에 대한 분석

발표2 김성희 | 청년세대가 보는 통일: 변화와 미래

토론 황태연 | 한미관계 인식에 대한 분석

김희정 | 청년세대가 보는 통일: 변화와 미래



• 통일외식

김범수

통일에 대한 인식 (요약문)

김범수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원장 / 자유전공학부 교수)

1. 통일의 이미지, 필요성과 이유

1) 통일의 이미지

통일의 이미지와 관련하여 응답자들이 가장 먼저 떠올린 이미지는 “남북이 하나의 국가로 합쳐지는 것”으로 2023년 조사에서 그 비중은 60.3%에 달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다수의 국민들이 정부의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이 궁극적 목표로 상정하고 있는 “1민족 1국가 1체제 1정부, 즉 남북한이 경제적으로 협력하고 자유롭게 왕래·교류하는 것을 넘어 하나의 국가로 합쳐지는 것을 통일로 인식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2) 통일의 필요성

2023년 조사의 가장 큰 특징 가운데 하나는 통일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중은 줄어들고, 통일이 필요하지 않다고 응답한 비중은 늘어나는 추세가 특히 20대와 30대 젊은층을 중심으로 지속되고 있다는 점이다. 구체적으로 2023년 조사에서 “매우”와 “약간”을 합해 통일이 필요하다는 응답의 비중은 43.8%로 2007년 조사를 시작한 이래 가장 낮은 수준으로 하락한 반면 “전혀”와 “별로”를 합해 통일이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의 비중은 29.8%로 2007년 조사를 시작한 이래 가장 높은 수준으로 상승하였다. 특히 20대(19~29세)의 경우 “매우”와 “약간”을 합해 통일이 필요하다는 응답의 비중은 28.2%에 불과한 반면 “별로”와 “전혀”를 합해 통일이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의 비중은 41.3%에 달하고 있으며, 30대의 경우도 필요하다는 응답의 비중은 34.0%로 40대와 50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반면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의 비중은 32.3%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처럼 20대와 30대를 중심으로 증가하고 있는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지난 몇 년간 조사에서도 일관되게 나타난 현상으로 앞으로 이러한 현상이 어떠한 추세로 변화할지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3) 통일의 이유

통일의 이유와 관련하여 2023년 조사에서 “같은 민족이니까”라고 응답한 비중은 30.6%로 2007년 조사를 시작한 이래 최저 수준으로 하락하였으며, 반면 “남북한 간 전쟁위험을 없애기 위해”서라고 응답한 비중은 38.9%로 조사 이래 가장 높은 수준으로 상승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통일의 이유로 민족적 당위 보다 전쟁 위험 감소라는 실질적 이유를 중시하는 인식이 우리 사회 내에서 확산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4) 통일이 되지 말아야 할 이유

통일이 되지 말아야 할 이유와 관련하여 “통일에 따르는 경제적 부담”이라고 응답한 비중은 33.9%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통일 이후 생겨날 사회적 문제”라는 응답한 비중이 28.7%, “남북 간 정치체제의 차이”라고 응답한 비중이 20.0%로 나타났다.

2. 통일에 대한 견해와 가능 시기

1) 통일에 대한 견해

통일에 대한 견해와 관련하여 “현재대로가 좋다”라는 응답 비중이 28.2%로 2007년 조사 이래 가장 높은 수준으로 상승하였다. 비슷한 맥락에서 “통일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다”라는 응답 또한 2018년 5.5%에서 2019년 5.8%, 2020년 6.8%, 2021년 8.0%, 2022년 8.9%, 2023년 9.9%로 상승하여 조사 이래 가장 높은 수준으로 상승하였다.

2) 통일의 가능 시기

통일 가능 시기와 관련하여 2023년 조사에서 통일이 “5년 이내”에 가능하다고 응답한 비중은 1.0%, “10년 이내” 가능하다고 응답한 비중은 6.2%에 불과하다. 반면 “통일이 불가능하다”라고 응답한 비중은 33.3%로 2007년 조사를 시작한 이래 가장 높은 수준으로 상승하였다. 특히 20대와 30대의 경우 통일이 불가능하다는 응답의 비중이 각각 39.3%와 35.0%로 40대(31.0%)와 50대(29.6%)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20대와 30대를 중심으로 통일이 필요없을 뿐만 아니라 불가능하다는 인식이 확산하고 있고 이러한 인식이 통일에 대한 무관심과 현재의 분단 체제를 선호하는 인식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3) 통일의 이익 기대감: 개인과 공동체

통일이 남한 전체에 이익이 될 것이라는 응답의 비중은 지난 몇 년간 지속적으로 50%를 넘어서고 있는 반면 자신에게 이익이 될 것이라는 응답의 비중은 이 보다 약 2~30% 정도 낮은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다.

4) 통일 이후 사회문제 개선에 대한 기대감

통일 이후 사회문제 개선에 대한 기대감 또한 전반적으로 하락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특히 이념갈등, 지역갈등, 범죄문제에 있어 통일 이후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다.

3. 통일한국의 체제와 통일정책의 시급성

1) 통일 한국의 체제

희망하는 통일 한국의 체제와 관련하여 2023년 조사 결과는 2007년 조사 이래 다수 국민이 “남한의 현체제 유지”를 선호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2023년 조사에서 “남한의 현체제 유지”를 선택한 응답의 비중은 49.4%를 나타내고 있다. 반면 “남북한 체제의 절충”을 선택한 응답은 2009년 최고치인 39.1%를 기록한 이후 전반적으로 하락하는 추세에 있다.

2) 통일 정책의 시급성

국민들은 통일을 이루기 위해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과제로 북한 비핵화, 북한의 인권 개선, 군사적 긴장해소 등의 순서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결과는 북한 핵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국민들이 북한 핵 문제를 통일을 이루기 위해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로 인식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4. 결론: 주요 특징 및 경향

요컨대 2023년 조사 결과는 2022년 발생한 우크라이나전쟁 이후 한·미·일 대 북·중·러의 신냉전 구도가 분명해지는 가운데 통일의 필요성과 가능성, 통일이 가져다 줄 이익에 대한 기대감, 통일 이후 사회문제 해결에 대한 기대감 등에 있어 전반적으로 부정적 인식이 증가하거나 유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비슷한 맥락에서 통일 한국의 체제와 관련하여 남한의 현체제 유지를 선호하는 경향이 지속되고 있으며, 통일정책의 시급성과 관련하여서도 북한 비핵화를 가장 시급한 사안으로 보는 인식이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2023년 조사에 나타난 이러한 경향들이 앞으로 남북관계와 국제정세 변화 속에 어떻게 변화해 나갈지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2023년 통일의식조사

김범수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원장 /
서울대학교 자유전공학부 교수

주요 특징

2023년 조사의 주요 특징

- 신냉전 구도가 등장하고 북한의 무력 도발이 지속되는 가운데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특히 20대와 30대를 중심으로 증가 추세에 있음
 - “전혀”와 “별로”를 합해 통일이 필요없다는 응답의 비중은 29.8%로 2007년 조사를 시작한 이래 가장 높은 수준으로 상승
 - 특히 20대(19~29세)의 경우 “매우”와 “약간”을 합해 통일이 필요하다는 응답의 비중은 28.2%에 불과한 반면 “별로”와 “전혀”를 합해 통일이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의 비중은 41.3%에 달함
 - 30대의 경우도 필요하다는 응답의 비중은 34.0%로 40대와 50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반면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의 비중은 35.0%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통일에 대한 관심이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가운데 분단체제인 “현재대로가 좋다”는 응답이 증가 추세에 있음
 - 통일에 대한 견해와 관련하여 “여건이 성숙되기를 기다려 점진적으로 통일되는 것이 좋다”는 응답의 비중은 45.2%로 2007년 조사를 시작한 이래 가장 낮은 수준으로 하락
 - 반면 남북한이 분단된 “현재대로가 좋다”는 응답의 비중은 28.2%로 2007년 조사를 시작한 이래 가장 높은 수준으로 상승

통일의식조사

통일의 이미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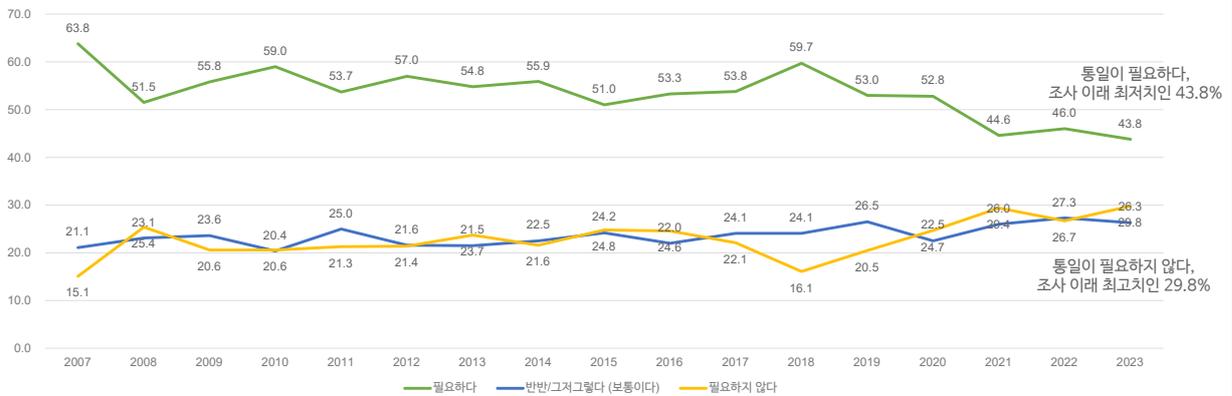
- 통일이라고 하면 가장 먼저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통일의 이미지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남북이 하나의 국가로 합쳐지는 것	58.1	60.6	62.9	64.3	58.1	60.3
남북 간 경제협력이 심화되는 것	14.8	15.0	13.3	11.6	13.2	12.7
사람과 물자가 자유롭게 왕래하는 것	19.3	20.0	17.7	17.8	20.0	21.3
가치, 문화, 교육이 서로 가까워지는 것	7.5	4.1	5.8	6.3	8.8	5.8
기타	0.3	0.3	0.3	0.0	0.0	0.0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통일의식조사

통일의 필요성

- 남북한 통일이 얼마나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통일의식조사

통일의 필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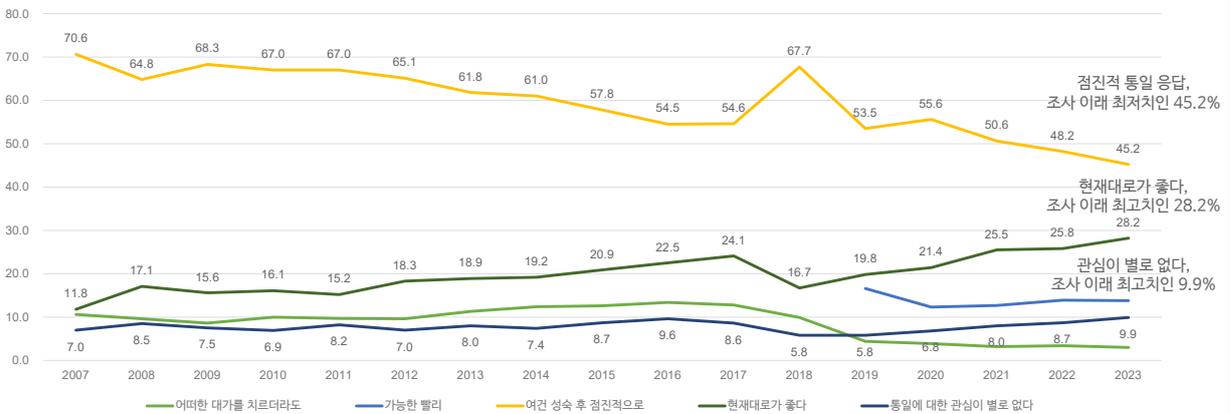
• 통일의 필요성 세대별 응답 비율(19~29세: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 41.2%로 역대 2위)

연령대	매우 필요하다					약간 필요하다					반반/ 그저 그렇다 (보통이다)					별로 필요하지 않다					전혀 필요하지 않다									
	'18	'19	'20	'21	'22	'23	'18	'19	'20	'21	'22	'23	'18	'19	'20	'21	'22	'23	'18	'19	'20	'21	'22	'23	'18	'19	'20	'21	'22	'23
19~29세	13.3	14.4	7.6	5.0	6.1	7.3	40.8	26.7	27.7	22.8	21.7	20.9	28.3	33.7	29.5	29.2	32.5	30.6	14.0	17.6	28.6	36.1	29.0	32.5	3.6	7.7	6.7	6.8	10.6	8.7
30대	17.3	11.7	16.8	9.6	7.3	8.5	35.6	26.5	26.2	31.3	26.7	25.5	27.4	36.9	26.2	24.5	33.8	31.0	17.5	21.5	23.8	28.8	24.2	28.0	2.3	3.4	7.0	5.8	8.1	7.0
40대	23.2	21.7	23.0	16.5	13.4	9.2	35.4	32.3	35.9	30.0	36.9	33.1	26.4	27.0	21.8	29.6	24.3	25.9	13.8	14.4	16.5	20.2	20.6	25.5	1.1	4.6	2.8	3.7	4.9	6.3
50대	27.2	25.9	28.0	15.1	18.6	17.7	42.2	36.1	34.9	31.8	31.8	34.2	16.0	21.0	18.4	26.4	30.3	22.7	13.3	14.6	13.0	22.5	16.3	20.8	1.2	2.5	5.8	4.3	3.0	4.6
60대 이상	24.6	25.1	26.9	20.6	23.8	28.1	37.5	41.7	33.6	36.4	37.4	27.5	23.4	15.6	18.2	21.0	18.4	23.7	9.3	11.4	18.6	18.0	16.5	17.6	5.2	6.2	2.8	4.0	3.9	3.1

통일의식조사

통일에 대한 견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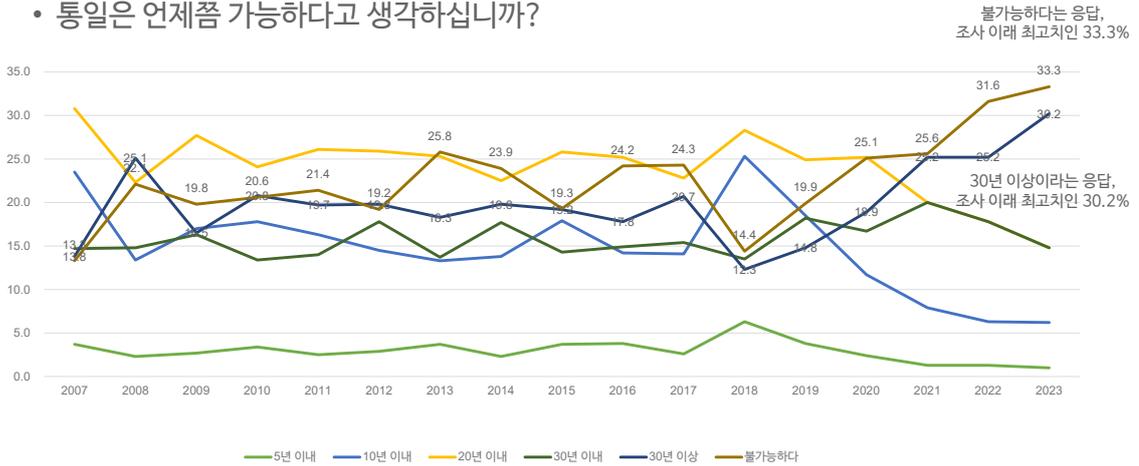
• 통일에 대한 생각은 다음 중 어느 것에 가장 가깝습니까?



통일의식조사

통일의 시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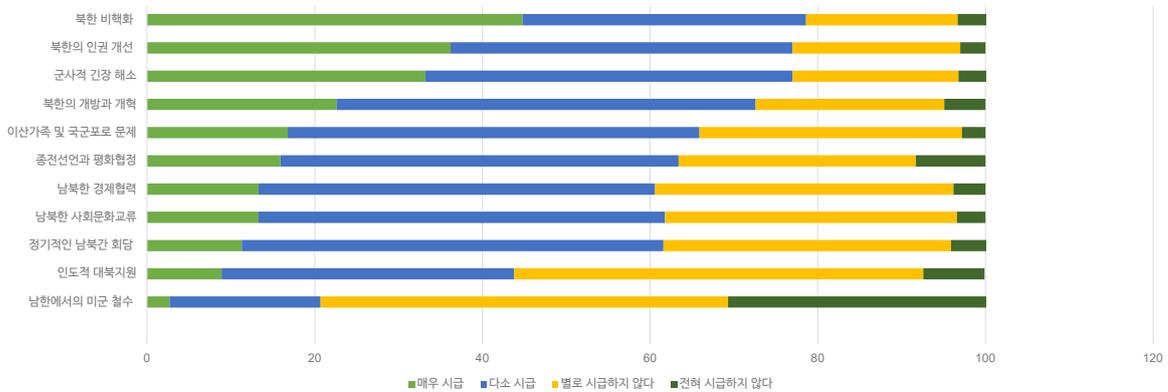
• 통일은 언제쯤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통일의식조사

시급성에 대한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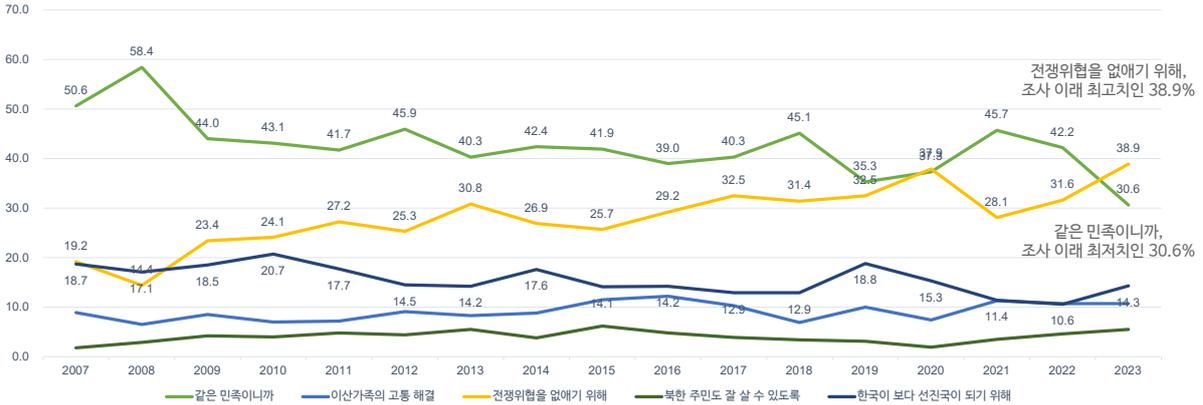
• 다음 사항들이 얼마나 시급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통일의식조사

통일의 이유

• 우리나라가 통일이 되어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통일의식조사

통일의 필요성과 통일의 가장 큰 이유 교차 분석

통일 필요성 \ 통일의 이유	같은 민족이니까	이산가족의 고통을 해결해 주기 위해	남북 간 전쟁위협을 없애기 위해	북한 주민도 잘 살 수 있도록	한국이 보다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	기타/없다/모름/무응답	합계 (N)
매우 필요	41.0 (75)	7.1 (13)	36.1 (66)	3.3 (6)	12.6 (23)	0.0 (0)	100.0 (183)
약간 필요	35.0 (120)	11.1 (38)	35.6 (122)	4.4 (15)	14.0 (48)	0.0 (0)	100.0 (343)
반반/보통이다	26.6 (84)	12.3 (39)	38.3 (121)	6.0 (19)	16.8 (53)	0.0 (0)	100.0 (316)
별로 필요하지 않다	25.9 (75)	10.7 (31)	43.8 (127)	6.6 (19)	13.1 (38)	0.0 (0)	100.0 (290)
전혀 필요하지 않다	19.1 (13)	10.3 (7)	45.6 (31)	10.3 (7)	14.7 (10)	0.0 (0)	100.0 (68)
합계	30.6 (367)	10.7 (128)	38.9 (467)	5.5 (66)	14.3 (172)	0.0 (0)	100.0 (1,200)

Pearson chi2(16) = 30.4193 Pr = 0.016

통일의식조사

통일이 되지 말아야 할 이유

- 통일이 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

통일이 되지 말아야 할 이유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남북 간 정치체제의 차이	19.2	17.9	21.1	21.3	21.5	20.0
남북 간 사회문화적 차이	13.7	12.7	13.4	16.3	20.1	13.3
통일에 따르는 경제적 부담	35.2	38.8	34.8	32.1	34.1	33.9
통일 이후 생겨날 사회적 문제	26.8	25.4	27.6	26.7	20.3	28.7
통일로 인한 주변국 정세의 불안정	4.5	4.6	2.6	3.3	4.0	4.1
기타	0.2	0.2	0.3	0.1	0.0	0.0
무응답	0.5	0.3	0.3	0.4	0.1	0.0
합계 (N)	1,200	1,200	1,200	1,200	1,200	1,200

통일의식조사

통일의 이익: 전체와 개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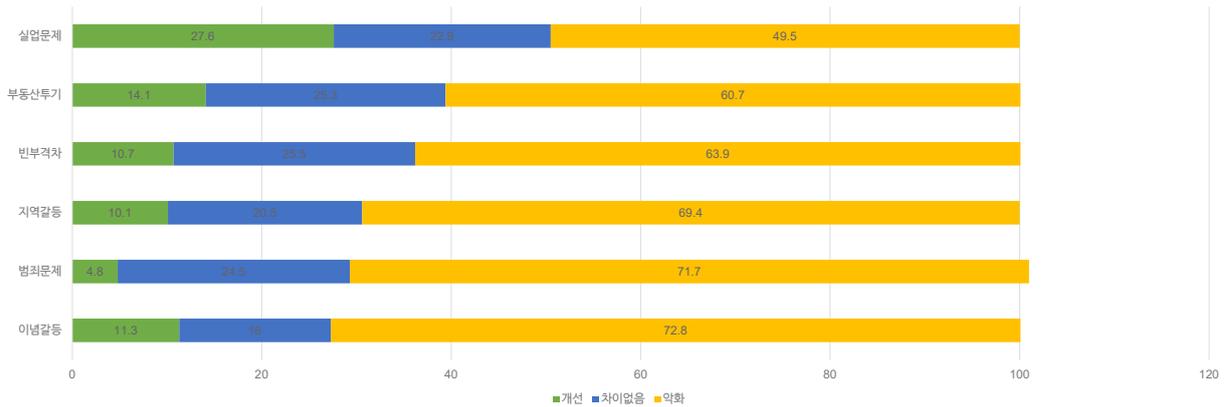
- 통일이 남한에 또는 자신에게 이익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통일의식조사

사회문제 개선에 대한 기대감

• 통일이 한국사회가 직면한 사회문제 개선에 기여하는지 악화시키는지?



통일의식조사

사회문제 개선에 대한 기대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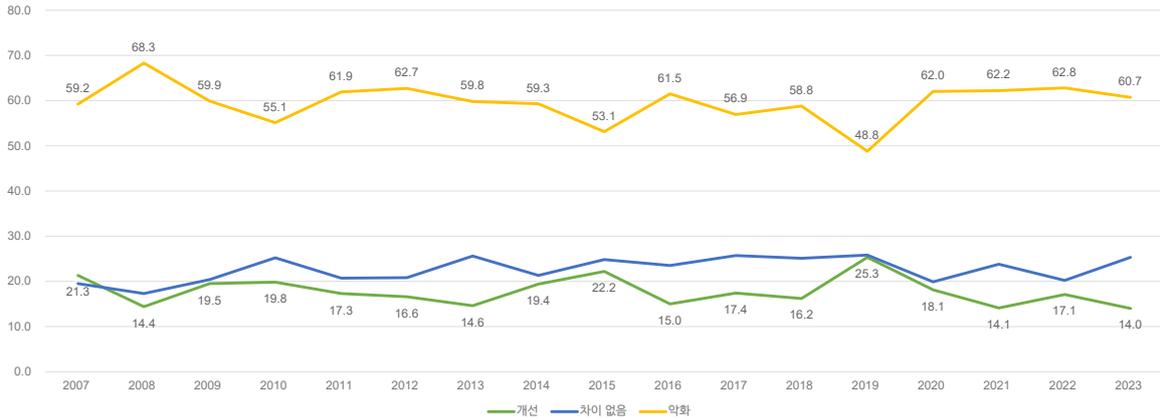
• 통일이 빈부격차 문제 개선에 기여하는지 악화시키는지?



통일의식조사

☝ 사회문제 개선에 대한 기대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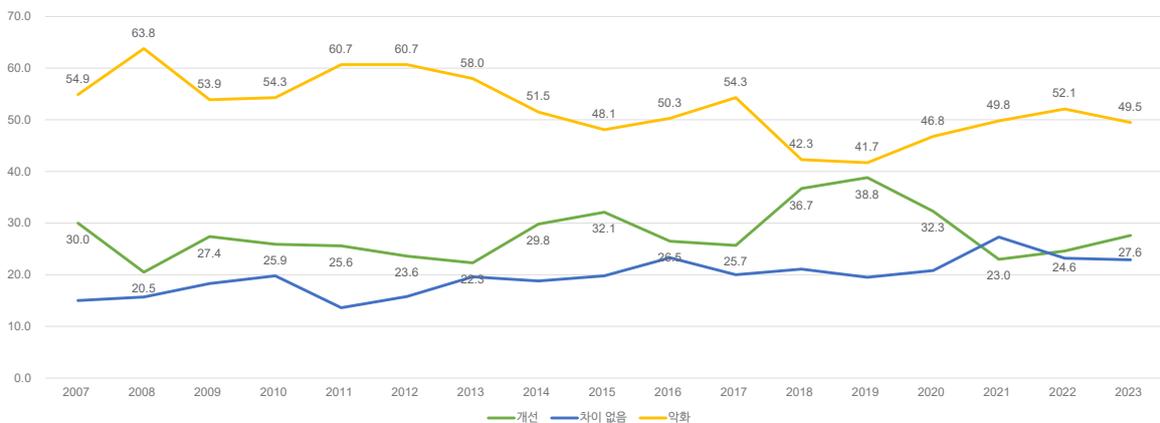
- 통일이 부동산투기 문제 개선에 기여하는지 악화시키는지?



통일의식조사

☝ 사회문제 개선에 대한 기대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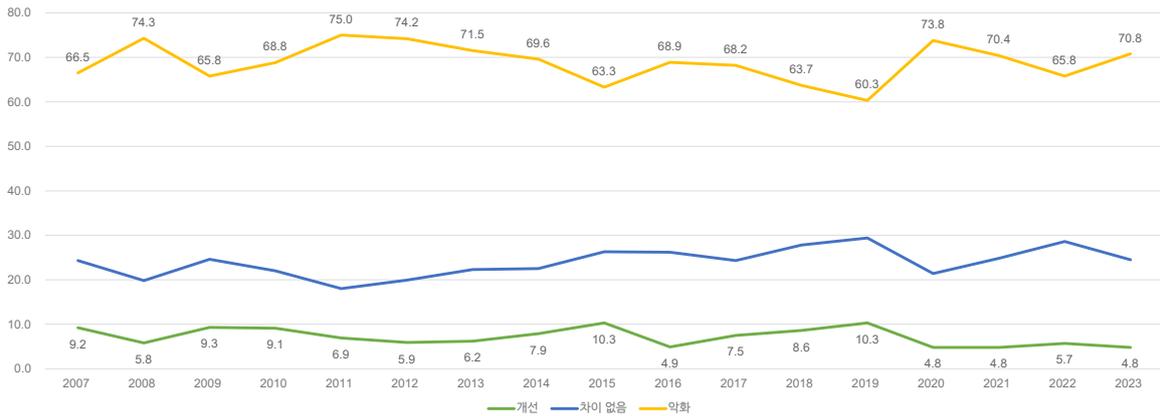
- 통일이 실업 문제 개선에 기여하는지 악화시키는지?



통일의식조사

☝ 사회문제 개선에 대한 기대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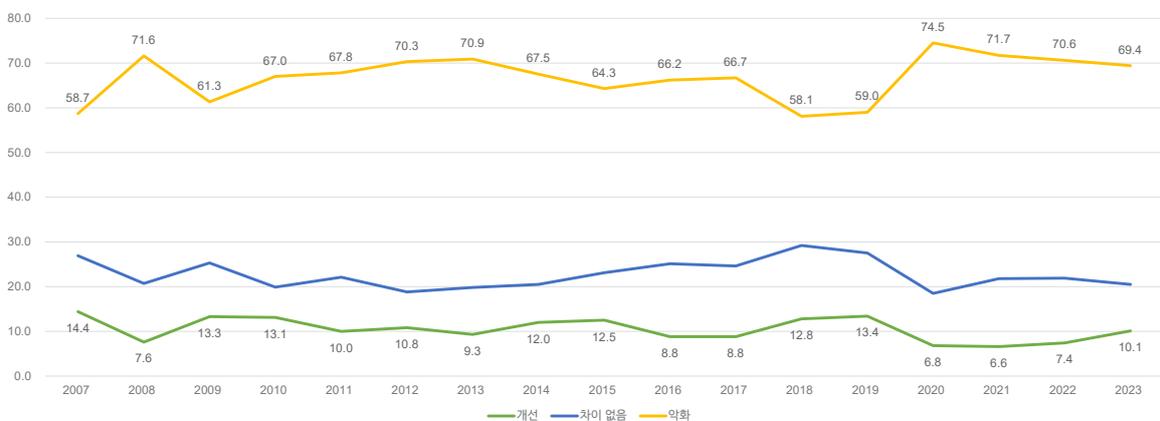
- 통일이 범죄 문제 개선에 기여하는지 악화시키는지?



통일의식조사

☝ 사회문제 개선에 대한 기대감

- 통일이 지역갈등 문제 개선에 기여하는지 악화시키는지?



통일의식조사

📍 사회문제 개선에 대한 기대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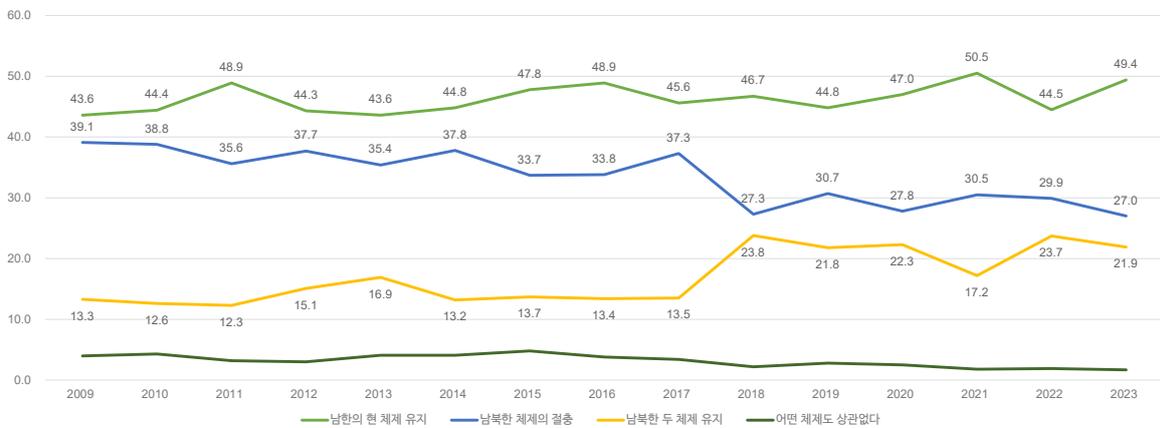
- 통일이 이념갈등 문제 개선에 기여하는지 악화시키는지?



통일의식조사

📍 희망하는 통일 한국의 체제

- 통일 한국이 어떤 체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주요 특징 및 경향

통일의 필요성

- 통일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중은 줄어들고, 통일이 필요하지 않다고 응답한 비중은 늘어나는 추세가 특히 20대와 30대 젊은층을 중심으로 지속
- “매우”와 “약간”을 합해 통일이 필요하다는 응답의 비중은 43.8%로 2007년 조사를 시작한 이래 가장 낮은 수준으로 하락한 반면 “전혀”와 “별로”를 합해 통일이 필요없다는 응답의 비중은 29.8%로 2007년 조사를 시작한 이래 최고 수준으로 상승
- 특히 20대(19~29세)의 경우 “매우”와 “약간”을 합해 통일이 필요하다는 응답의 비중은 28.2%에 불과한 반면 “별로”와 “전혀”를 합해 통일이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의 비중은 41.3%에 달함
- 30대의 경우도 ‘필요하다’는 응답의 비중은 34.0%로 40대(42.3%)와 50대(51.9%)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반면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의 비중은 35.0%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주요 특징 및 경향

통일에 대한 견해

- 통일에 대한 견해와 관련하여 “여건이 성숙되기를 기다려 점진적으로 통일되는 것이 좋다”는 응답의 비중은 45.2%로 2007년 조사를 시작한 이래 가장 낮은 수준으로 하락한 반면 남북이 2국가로 분단된 “현재대로가 좋다” 응답의 비중은 28.2%로 2007년 조사를 시작한 이래 가장 높은 수준으로 상승
- “현재대로가 좋다”라고 응답한 비중은 2018년 16.8%에서 2019년 19.7%, 2020년 21.4%, 2021년 25.5%, 2022년 26.3%, 2023년 28.2%로 계속 상승하여 2007년 조사 이래 가장 높은 수준으로 상승
- 비슷한 맥락에서 “통일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다”라는 응답 또한 2018년 5.5%에서 2019년 5.8%, 2020년 6.8%, 2021년 8.0%, 2022년 8.9%, 2023년 9.9%로 계속 상승하여 조사 이래 가장 높은 수준으로 상승

주요 특징 및 경향

통일의 가능 시기

- 통일 가능 시기와 관련하여 2023년 조사에서 통일이 “5년 이내”에 가능하다고 응답한 비중은 1.0%, “10년 이내” 가능하다고 응답한 비중은 6.2%로 두 항목 모두 2007년 조사를 시작한 이래 가장 낮은 수준으로 하락
- “통일이 불가능하다”라고 응답한 비중은 33.3%로 2007년 조사를 시작한 이래 가장 높은 수준으로 상승
- 특히 20대와 30대의 경우 통일이 불가능하다는 응답의 비중이 각각 39.3%와 35.0%로 40대(31.0%)와 50대(29.6%)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이러한 결과는 20대와 30대를 중심으로 통일이 필요없을 뿐만 아니라 불가능하다는 인식이 확산하고 있고 이러한 인식이 통일에 대한 무관심과 현재의 분단 체제를 선호하는 인식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시사

주요 특징 및 경향

통일정책의 시급성: 북한 핵 문제

- 통일을 이루기 위해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과제로 북한 비핵화, 북한의 인권 개선, 군사적 긴장해소 등의 순서로 인식
- 이러한 결과는 북한 핵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국민들이 북한 핵 문제를 통일을 이루기 위해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로 인식하고 있음을 시사
- 그러나 이와 동시에 2023년 조사 결과는 북한 비핵화가 “매우 시급하다”라는 응답의 비중이 2018년 이후 지속적인 하락 추세에 있음을, 반면 “별로 시급하지 않다”라는 응답의 비중은 2018년 이후 지속적인 상승 추세에 있음을 보여줌
- 이러한 결과는 문재인 정부 시기 남북한 대화 국면 속에 북한이 핵실험을 자제함에 따라 북핵 문제 해결의 시급성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다소 완화되었음을 시사

주요 특징 및 경향

통일의 이유

- 통일이 되어야 하는 가장 큰 이유로 “같은 민족이니까”라고 응답한 비중이 30.6%로 2007년 조사를 시작한 이래 가장 낮은 수준으로 하락
- 특히 20대와 30대의 경우 “같은 민족이니까”라고 응답한 비중이 22.8%, 22.5%로 40대(32.6%), 50대(32.7%), 60대 이상(38.0%)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
- 반면 “남북 간에 전쟁위험을 없애기 위해”라고 응답한 비중은 38.9%로 2007년 조사를 시작한 이래 가장 높은 수준으로 상승
- 분단이 70년 이상 지속되는 상황에서 통일의 이유로 민족적 당위 보다 전쟁 위협과 같은 실질적인 이유가 더 중요해짐
- 통일이 되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통일에 따르는 경제적 부담”이 가장 높음

주요 특징 및 경향

통일 한국의 체제

- 희망하는 통일 한국의 체제와 관련하여 “남한의 현 체제를 그대로 유지한다”라고 응답한 비중이 49.4%로 2021년 50.5%에 이어 2007년 조사를 시작한 이래 두번째로 높은 수준으로 상승
- 반면 “남한과 북한의 체제를 절충한다”라고 응답한 비중은 27.0%로 2007년 조사를 시작한 이래 가장 낮은 수준으로 하락
- 남북한 체제 경쟁의 결과 남한의 우위가 분명해진 상황에서 남한의 현 체제 유지를 선호하는 인식이 확산하고 있음을 시사

결론

- 2030세대를 중심으로 통일의 필요성과 가능성에 대한 부정적 인식의 지속
 - 2023년 조사 결과는 2022년에 발생한 우크라이나전쟁 이후 한·미·일 vs. 북·중·러의 신냉전 구도가 분명해지는 가운데 통일의 필요성과 가능성, 통일이 가져다 줄 이익에 대한 기대감, 통일 이후 사회문제 해결에 대한 기대감 등에 있어 전반적으로 부정적 인식이 증가하거나 유지되고 있음을 보여줌
 - 통일이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 비중이 2007년 조사 이래 가장 높은 수준으로 상승
 - 통일이 불가능하다는 응답 비중 또한 2007년 조사 이래 가장 높은 수준으로 상승
 - 반면 남북이 분단된 “현재대로가 좋다”라는 응답 비중은 2007년 조사 이래 가장 높은 수준으로 상승
 - 통일정책의 시급성과 관련하여서도 북한 비핵화를 가장 시급한 사안으로 보는 인식이 지속되고 있음



● 북한인식

김병로

북한에 대한 인식 (요약문)

김병로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1. 대북인식 조사 결과

- 2023년 한국인의 대북인식은 전반적으로 적대/경계 의식이 높아지고, 협력의식이 약화되었으며, 북한 도발 가능성도 소폭 상승
 - 적 13.6%→18.6%, 경계 17.7%→24.0%
 - 협력 47.9%→37.7%
 - 북한 무력도발 가능성 60.9%→64.8%
- 북핵위험과 북한정권에 대한 불신은 높은 수준에서 큰 변화 없이 존재
- 북한인권상황에 대한 심각성("심각하다")이 최근 2년 사이에 33.3%→36.5%→42.5%로 급상승 및 북한 국가성에 대한 인식 하락

2. 변수별 분석

- 북핵위험, 북한인권상황 등에 대해서는 국민적 공감대가 높아 변수별 차이가 없음
- 남북한관계(북한대상인식), 북한정권신뢰도, 무력도발, 북한의 국가성등에 대해서는 연령, 지역, 현대통령직무평가, 정치성향 등에 따라 차이가 있음
- 연령: 586세대의 대북협력의식과 20대의 경계/적 의식
 - 20대 부정적 북한인식(경계+적대) 49.3%로 가장 높음
 - 50대 북한정권신뢰도 높고, 무력도발가능성 높다고 판단
- 지역: 지역별 차이는 확연하나, 사안별로 다르게 반응
 - 대북협력의식에서는 호남권>수도권(강원, 제도)>충청권>영남권
 - 북한도발에 대해서는 충청>영남,수도>호남 등
- 현 대통령 직무평가와 대북인식은 매우 높은 상관관계
 - 대통령이 직무수행을 잘하고 있다고 평가하는 사람들은 대북 적/경계 의식 높고, 잘못하고 있다는 평가는 대북 협력/지원 평가 높음
 - 직무수행 잘하고 있다는 평가는 북한도발 가능성을 낮게 평가하고, 직무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평가는 북한도발 예측 높음
- 정치성향은 대북인식과 매우 높은 상관관계
 - 협력대상, 진보 44.0% > 중도 36.7% > 보수 33.3%
 - 적대대상, 진보 13.0% > 중도 19.1% > 보수 23.6%
 - 정권대화가능, 진보 41.3% > 중도 30.2% > 보수 24.2%

3. 결론

-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 장거리 미사일 실험 발사 등이 예상되는 바 대북 부정인식은 개선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세대/지역/이념별 의식 분화가 유지될 가능성이 높음
- 하지만 코로나19 이후 북한이 관광 개방, 교육 및 문화 국제교류 활성화 등으로 북한변화에 대한 미디어 노출이 진행된다면, 북한에 대한 긍정적 인식과 신뢰가 상승할 가능성 및 변수별 의식 분화 확대 가능성 존재

북한에 대한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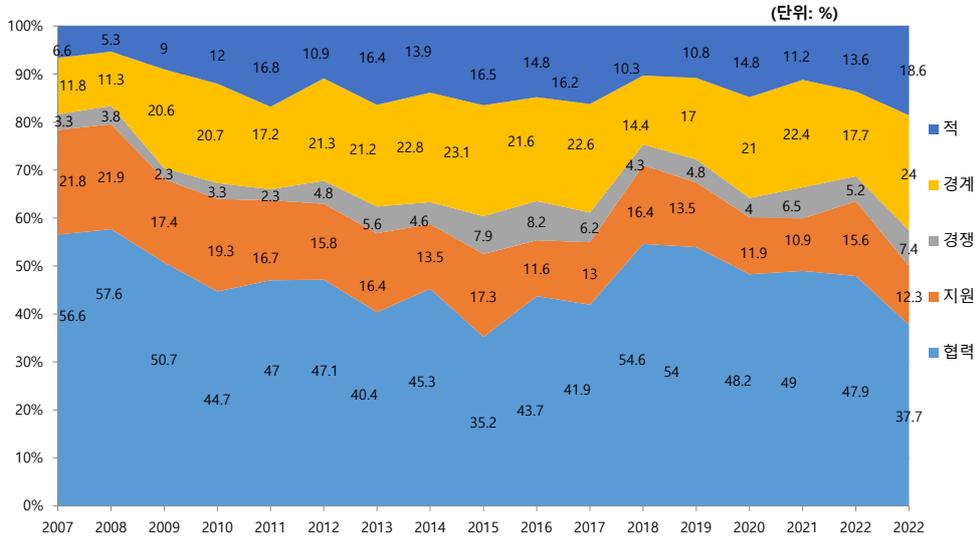
김병로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목 차

- I. 대북인식 조사결과
- II. 변수별 분석
- III. 결론

I. 대북인식 조사결과

(1) 남북한관계 - "북한은 우리에게 어떤 대상인가?"



- 적대인식 및 경계인식, 조사 이래 가장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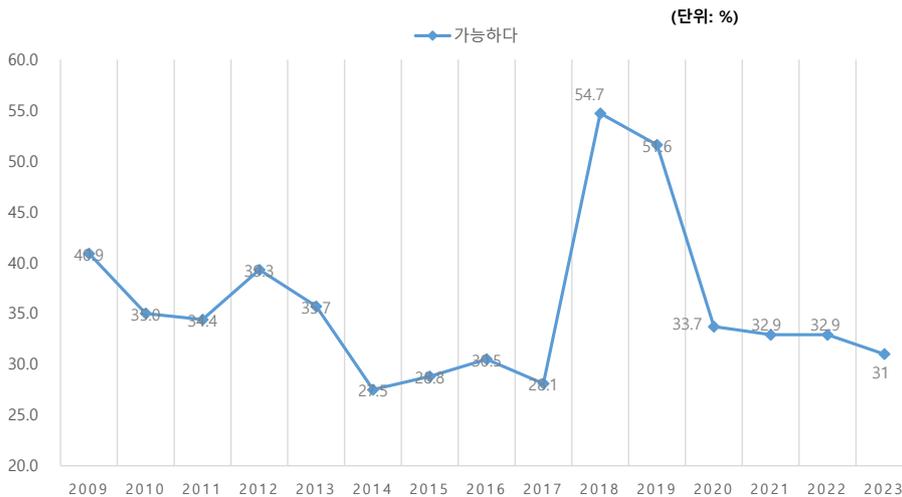
- 협력인식 2015년에 이어 두번째로 낮음

- 남북관계 경색의 결과

I. 대북인식 조사결과

(2) 대화와 타협의 상대

("통일을 함께 논의할 상대로 북한정권이 대화와 타협이 가능한 상대라고 생각하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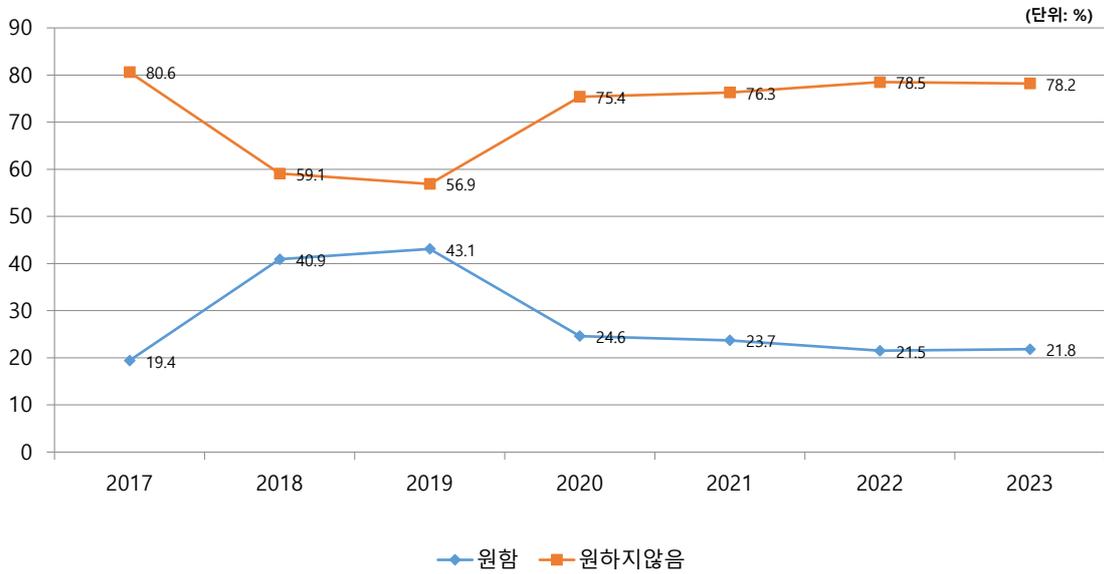


- 31.0% 남한 주민, 북한정권을 대화와 타협의 상대로 인정.

- 2018년 기록적인 신뢰상승 및 급락 후 4년간 지속, 북한정권에 대한 신뢰 상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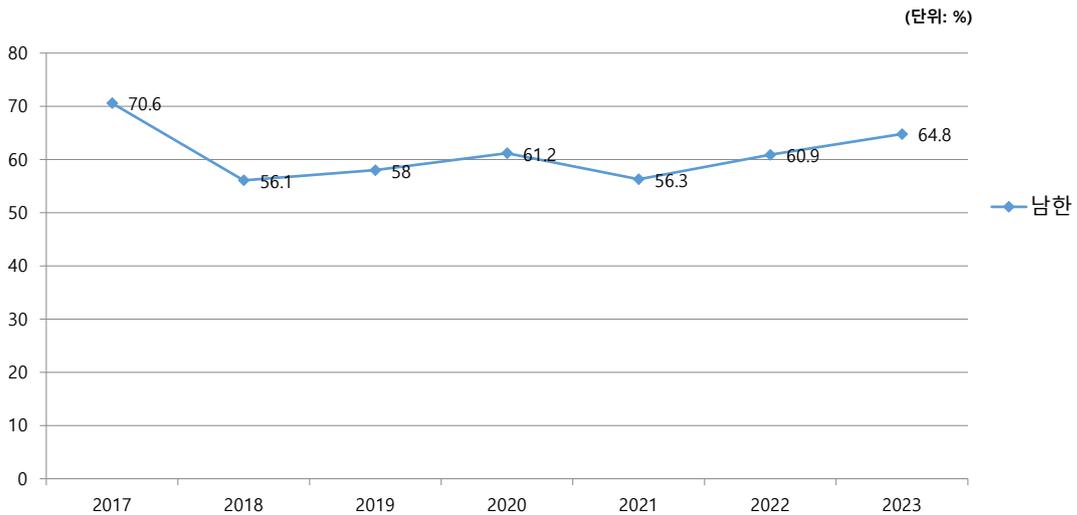
I. 대북인식 조사결과

(3) 북한정권이 통일을 얼마나 원한다고 생각하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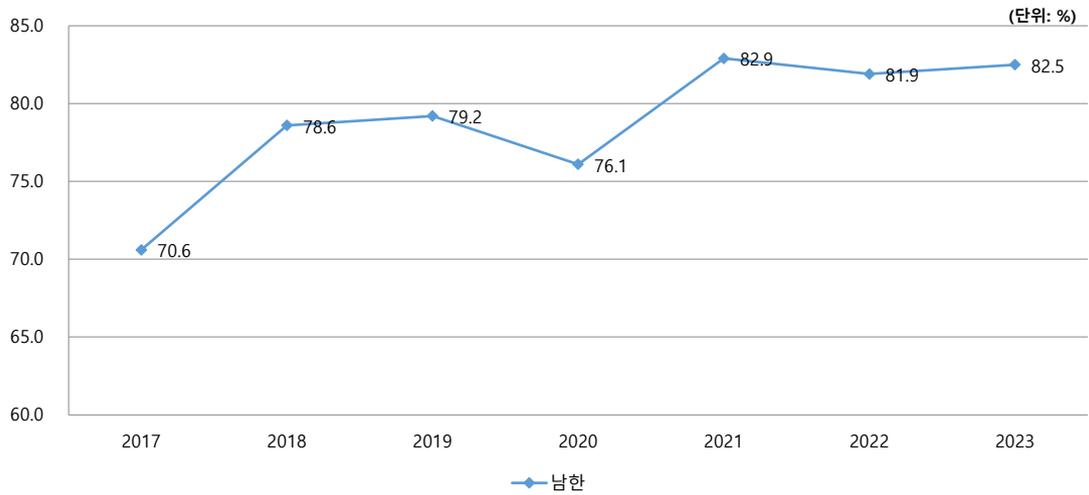
I. 대북인식 조사결과

(4) 북한의 대남 무력도발 가능성 ("앞으로 북한의 무력도발 가능성이 얼마나 있다고 생각하는가?")



I. 대북인식 조사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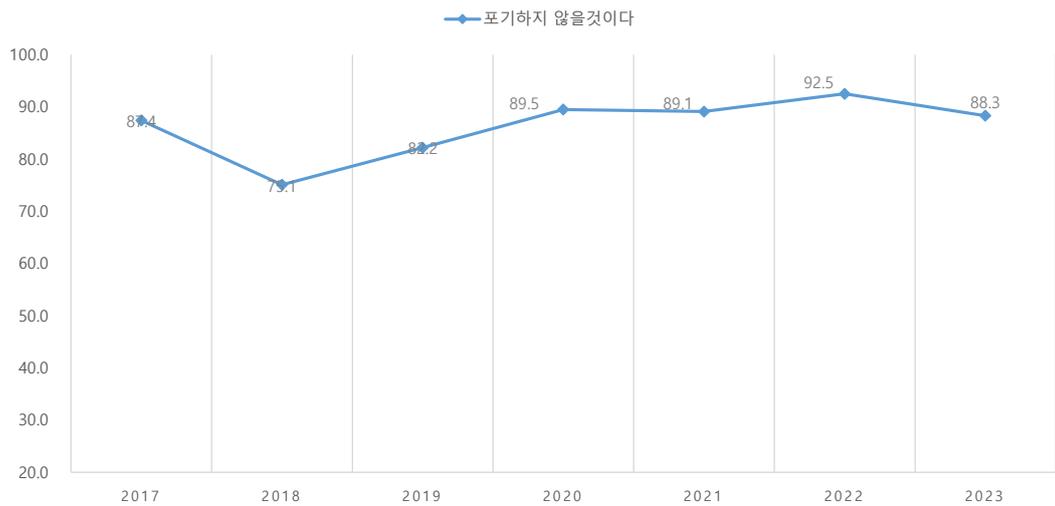
(5) 북한 핵보유 위협 인식 ("북한 핵무기 보유에 대해 얼마나 위협을 느끼는가?")



I. 대북인식 조사결과

(6) 북한 핵무기 포기 가능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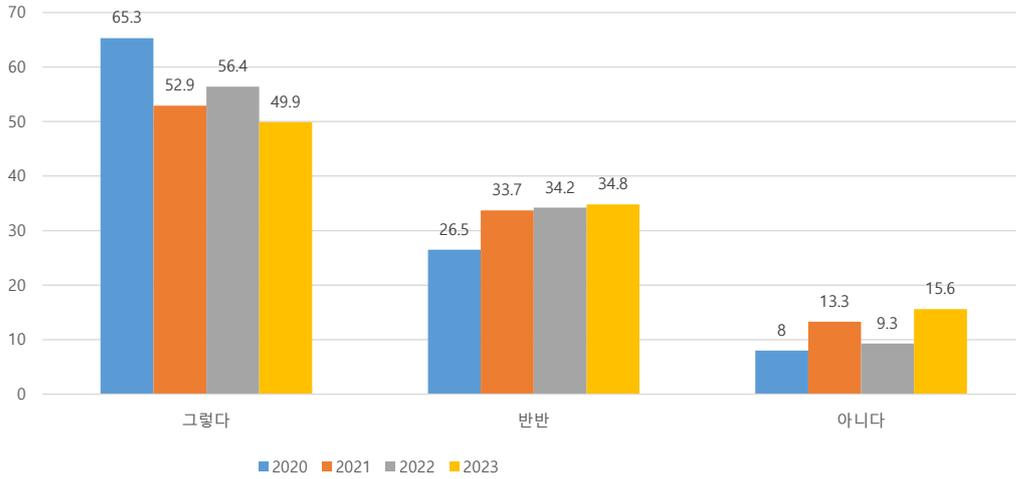
(단위: %)



I. 대북인식 조사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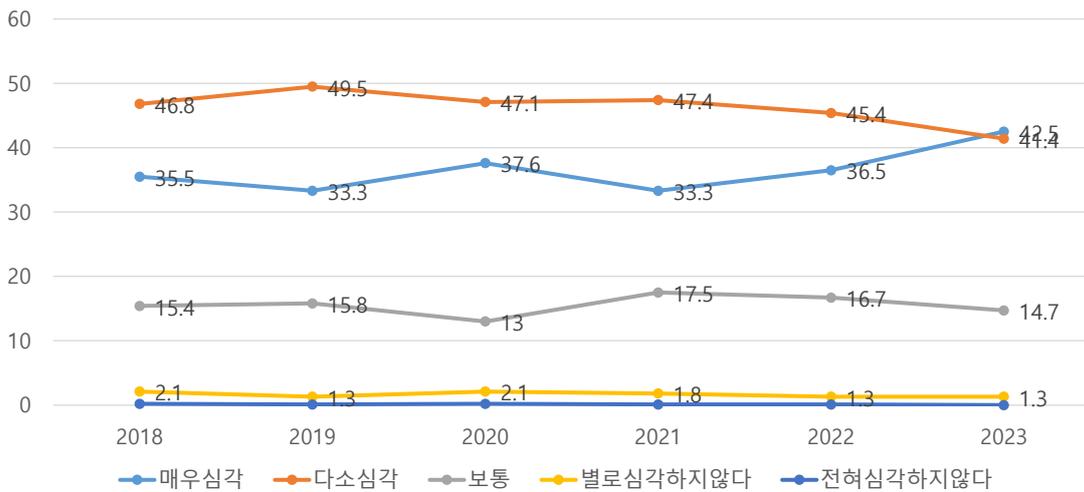
(7) 북한의 국가성 인식 - “북한도 하나의 국가다”

(단위: %)



I. 대북인식 조사결과

(8) 북한 인권상황



I. 대북인식 조사결과

- 2023년 한국인의 대북인식은 전반적으로 적대/경계 의식이 높아지고, 협력의식이 약화, 북한 도발 가능성도 소폭 상승
 - 적 13.6%→18.6%, 경계 17.7%→24.0%
 - 협력 47.9%→37.7%
 - 북한 무력도발가능성 60.9%→64.8%
- 북핵위험과 북한정권에 대한 불신은 높은 수준에서 큰 변화 없이 존재
- 북한인권상황에 대한 심각성("심각하다")이 최근 2년 사이에 33.3%→36.5%→42.5%로 급상승 및 북한 국가성에 대한 인식 하락

II. 변수별 분석

변수별 상관관계

변수	남북한관계	북한정권신뢰도	무력도발	핵무기위협	국가성	인권상황
성별	0.159	0.676	0.748	0.676	0.223	0.670
연령	0.000	0.961	0.012	0.491	0.140	0.888
교육	0.205	0.347	0.433	0.819	0.079	0.283
지역	0.001	0.001	0.000	0.000	0.000	0.000
지역크기	0.035	0.347	0.000	0.281	0.157	0.030
사회계층	0.653	0.000	0.075	0.339	0.091	0.002
현대통령직무평가	0.001	0.007	0.000	0.000	0.000	0.012
정치성향	0.008	0.001	0.651	0.387	0.009	0.329
종교	0.636	0.017	0.545	0.000	0.115	0.243

II. 변수별 분석

- 북핵위험, 북인권상황 등에 대해서는 국민적 공감대가 높아 변수별 차이가 없음
- 남북한관계(북한대상인식), 북한정권신뢰도, 무력도발, 북한의 국가성 등에 대해서는 연령, 지역, 현대통령 직무평가, 정치성향 등에 따라 차이가 있음
- 연령: 586세대의 대북협력의식과 20대의 경계/적 의식
 - 20대 부정적 북한인식(경계+적대) 49.3%로 가장 높음
 - 50대 북한정권신뢰도 높고, 무력도발가능성 높다고 판단
- 지역: 지역별 차이는 확연하나, 사안별로 다르게 반응
 - 대북협력의식에서는 호남권 > 수도권 (강원, 제도) > 충청권 > 영남권
 - 북도발에 대해서는 충청 > 영남, 수도권 > 호남 등

II. 변수별 분석

- 현대통령직무평가와 대북인식은 매우 높은 상관관계
 - 잘하고 있다는 평가는 대북 적/경계 높고, 잘못하고 있다는 평가는 대북 협력/지원 평가 높음
 - 잘하고 있다는 평가는 북한도발 낮고, 잘못하고 있다는 평가는 북한도발 예측 높음.
- 정치성향은 대북인식과 매우 높은 상관관계
 - 협력대상 진보 44.0 > 중도 36.7 > 보수 33.3
 - 적대대상 진보 13.0 > 중도 19.1 > 보수 23.6
 - 정권대화가능 진보 41.3 > 중도 30.2 > 보수 24.2

Ⅲ. 결론

-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 장거리 미사일 실험 발사 등이 예상되는 바 대북 부정 인식은 개선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세대/지역/이념별 의식 분화가 유지될 가능성이 높음
- 하지만 코로나19 이후 북한이 관광 개방, 교육 및 문화 국제교류 활성화 등으로 북한변화에 대한 미디어 노출이 진행된다면, 북한에 대한 긍정적 인식과 신뢰가 상승할 가능성 및 변수별 의식 분화 확대 가능성 존재

감사합니다.



● 대북정책인식

조용신

대북정책인식 (요약문)

조용신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1. 대북정책에 대한 만족도

■ 종합

- 2023년 현 정부 대북정책에 대한 만족도를 묻는 문항에 '매우 만족', '다소 만족' 등 만족한다는 응답은 54.3%로 지난해 45.5% 대비 8.8%p 상승함.
- 이는 2019년 이후 최고 수준이며 전체 기간(2007년~2023년) 평균 45.2%를 웃도는 수준임.
- 그러나 남북 간 대화 국면이 이어졌던 2018년의 65.6%에는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조사됨.

■ 연령대별

- 대북정책 만족도를 연령대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60대 이상(60.0%), 30대(55.0%), 40대(54.4%), 20대(50.7%), 50대(49.6%) 순으로 나타남.
- 2022년 대비 전 연령대에서 만족한다는 응답이 상승하였고, 상승폭은 40대(13.9%p), 20대(10.6%p), 60대 이상(10.5%p), 30대(6.7%p), 50대(2.9%p) 순으로 파악됨

■ 정치성향별

- 진보, 중도, 보수 등 모든 정치성향 집단의 만족도가 2022년 대비 상승함.
- 상승폭은 보수(12.2%p), 중도(10.0%p), 진보(2.6%p) 순으로 나타남.
- 진보층과 보수층 간 대북정책 만족 응답률 차이는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상승한 후 2022년까지 하락하였으나 올해 재차 반등한 것으로 파악됨.

■ 지역별

- 2023년 대북정책 만족도를 지역별로 나누어보면 영남(61.7%), 수도권(60.0%), 충청(48.2%), 강원(47.5%), 호남(42.7%) 순으로 높았음.
- 2022년 대비 모든 지역에서 대북정책 만족도가 상승함.

2. 대북정책의 효용성

■ 북한 개혁개방

- 2023년 대북정책별 북한 개혁개방에 대한 효용성 인식은 '사회문화교류'와 '경제협력' 응답률이 61.0%로 가장 높았으며 '인도적 대북지원'이 51.8%, '대북제재'가 45.0%를 기록하여 뒤를 이었음.
- 2022년 대비 모든 대북정책의 효용성 인식이 하락함.

■ 북한 비핵화

- 대북정책별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효용성 인식으로는 2023년 '대북제재'가 47.7%, '남북 경제협력'이 46.4%, '군사적 억지력 강화'가 46.3%, '인도적 대북지원'이 43.5% 순으로 조사됨.

3. 대북정책의 방식

■ 종합

- 효과적 대북정책의 방식으로는 '유엔 등 국제사회와의 협력'이 46.9%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기록하였으며 뒤이어 '미국·일본과의 협력', '한국의 단독 정책 수행', '중국·러시아와의 협력'이 각각 28.8%, 16.6%, 7.8%를 차지함.
- 2022년 대비 '국제사회와의 협력'과 '미국·일본과의 협력' 응답률은 상승한 반면, '한국의 단독 정책 수행' 응답률을 하락함.

4. 대북정책의 목표

■ 종합

- 가장 중요시해야 하는 대북정책의 목표로는 '남북의 평화적 공존 및 한반도 평화정착'이 64.4%로 2021년, 2022년에 이어 2023년에도 가장 높은 응답률을 유지함.
- 2022년 대비 '남북의 평화적 공존 및 한반도 평화정착'과 '북한의 개혁개방과 남북경제공동체 통합' 응답률은 상승하였으나 '남북통일' 응답률은 하락함.

5. 핵무기 보유에 대한 의견

■ 찬성 의견

- 한국의 핵무기 보유를 찬성하는 의견은 52.3%로 2022년 대비 3.7%p 하락함.

■ 핵무장 방식

- 선호하는 핵무장 방식으로는 '자체 핵무기 개발'이 49.3%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기록하였으며 '미국 전술핵무기 배치'가 23.6%를 기록함.

2023 통일의식조사 -대북정책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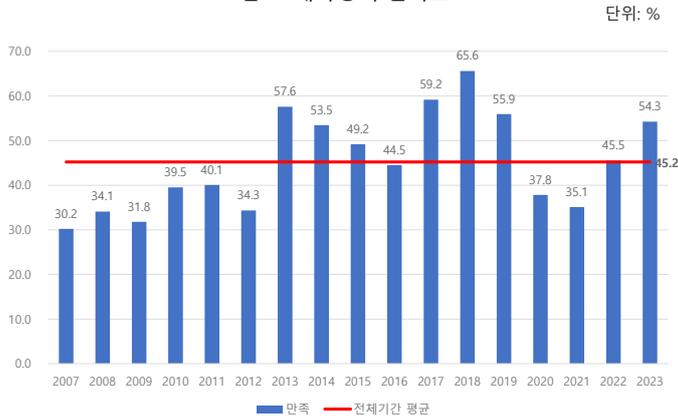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조 용 신

목차

- 대북정책 만족도
- 대북정책의 효용성 인식
- 대북정책의 방식
- 대북정책의 목표
- 핵무장에 대한 의견

대북정책에 대한 만족도

그림 1. 대북정책 만족도



- 2021년 이후 이어져 온 상승세 지속
- 2017~2019 기간 보다는 낮은 수준
- 전체기간 평균 45.2% 대비 높은 수준

대북정책에 대한 만족도: 연령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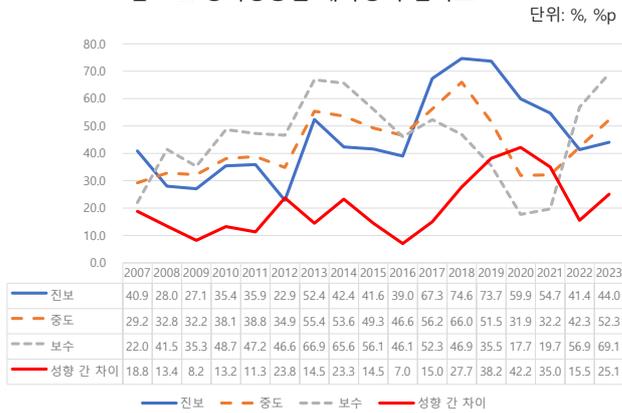
그림 1-1. 연령대별 대북정책 만족도



- 2023년 연령대별 대북정책 만족도는 60대 이상, 30대, 40대, 20대, 50대 순
- 2022년 대비 모든 연령대에서 만족도 상승
- 상승폭은 40대(13.9%p), 20대(10.6%p), 60대 이상(10.5%p), 30대(6.7%p), 50대(2.9%p)
- 60대 이상 집단의 경우 2016년 이후 큰 폭 변화
- 전 기간 표준편차는 30대, 60대 이상, 20대, 40대, 50대 순 (11.7, 11.5, 11.1, 10.8, 10.7)

대북정책에 대한 만족도: 정치성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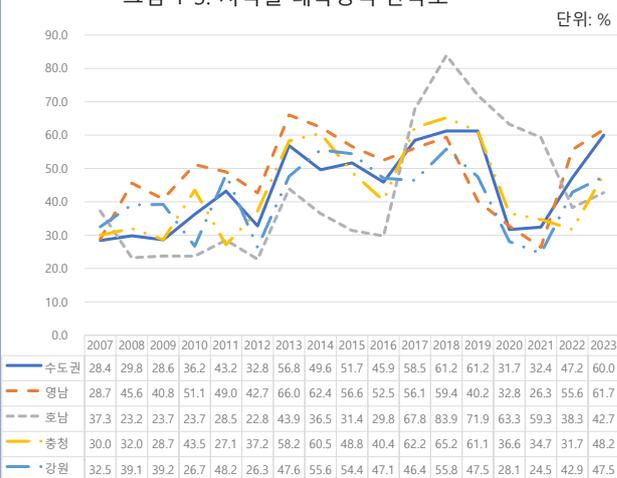
그림 1-2. 정치성향별 대북정책 만족도



- 2023년 정치성향별 대북정책 만족도는 보수층이 가장 높은 수준 기록
- 2022년 대비 모든 정치성향에서 만족도 상승
- 상승폭은 보수(12.2%p), 중도(10.0%p), 진보(2.6%p) 순
- 정치성향 간 만족도 차이는 2023년 반등

대북정책에 대한 만족도: 지역

그림 1-3. 지역별 대북정책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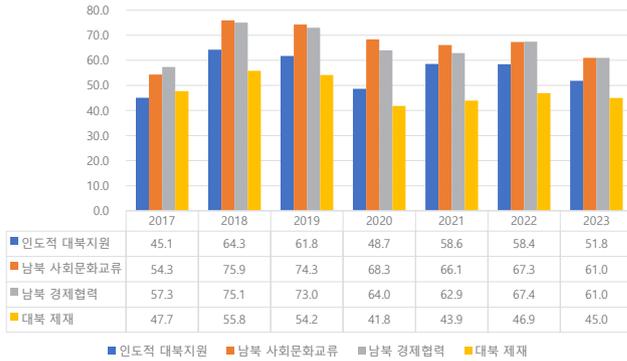


- 2023년 대북정책 만족도는 영남, 수도권, 충청, 강원, 호남 순
- 2023년 모든 지역에서 만족도 상승
- 상승폭은 충청(16.5%p), 수도권(12.8%p), 영남(6.1%p), 강원(4.6p), 호남(4.4p) 순

대북정책의 효용성: 북한 개혁개방

그림 2. 대북정책의 북한 개혁개방에 대한 효용성 인식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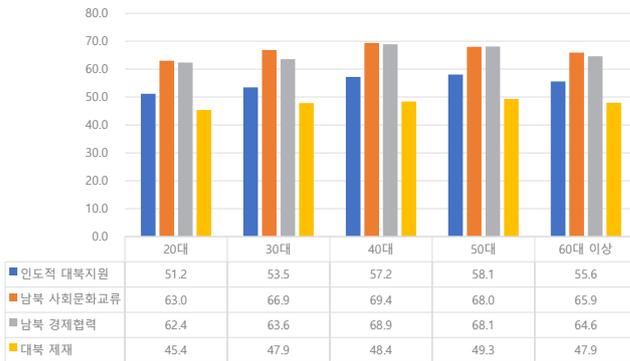


- 2023년 대북정책별 개혁개방에 대한 효용성은 사회문화교류와 경제협력, 인도적 대북지원, 대북제재 순
- 2022년 대비 모든 대북정책 효용성 하락
- 하락폭은 인도적 대북지원(6.6%p), 경제협력(6.4%p), 사회문화교류(6.3%p), 대북제재(1.9%p) 순

대북정책의 효용성: 북한 개혁개방

그림 2-1. 대북정책의 북한 개혁개방에 대한 효용성 인식 (연령대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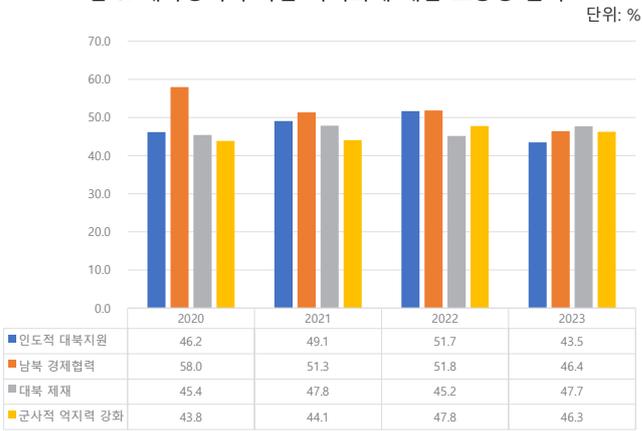
단위: %



- 전체기간 4,50대에서 상대적으로 개혁개방에 대한 정책 효용성을 높게 인식하는 반면, 2,30대와 60대에서는 낮게 인식 (inverse U-shape)
- 모든 연령대에서 사회문화교류와 경제협력에 대한 효용성을 가장 높게 인식, 다음으로 인도적 대북지원, 마지막으로 대북제재

대북정책의 효용성: 북한 비핵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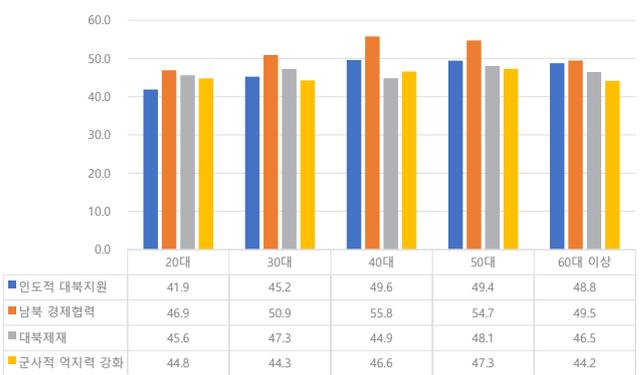
그림 3. 대북정책의 북한 비핵화에 대한 효용성 인식



- 2023년 대북정책별 비핵화에 대한 효용성은 대북제재, 경제협력, 군사적 억지력 강화, 인도적 대북지원 순
- 2022년 대비 대북제재 이외의 대북정책의 효용성 인식 하락
- 하락폭은 인도적 대북지원(8.2%p), 경제협력(5.4%p), 군사적 억지력 강화(1.5%p) 순
- 반면 대북제재의 효용성 인식은 2.5%p 상승

대북정책의 효용성: 북한 비핵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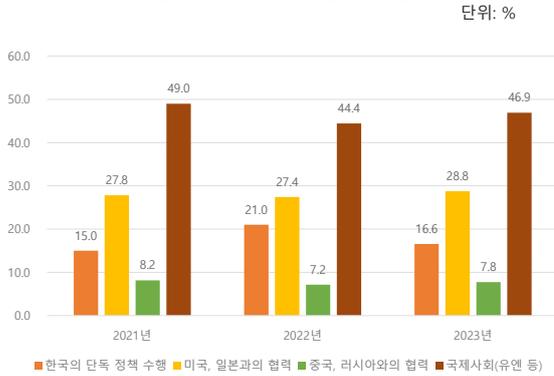
그림 3-1. 대북정책의 북한 비핵화에 대한 효용성 인식 (연령대별)



- 전체기간 4,50대에서 상대적으로 비핵화에 대한 정책 효용성을 높게 인식하는 반면, 2,30대와 60대에서는 낮게 인식 (inverse U-shape)
- 모든 연령대에서 경제협력에 대한 효용성을 가장 높게 인식
- 2,30대의 경우 인도적 대북지원 보다는 대북 제재에 대한 효용성을 높게 인식하는 반면, 40대 이상의 경우 대북제재 보다는 인도적 대북지원에 대한 효용성을 높게 인식

대북정책의 방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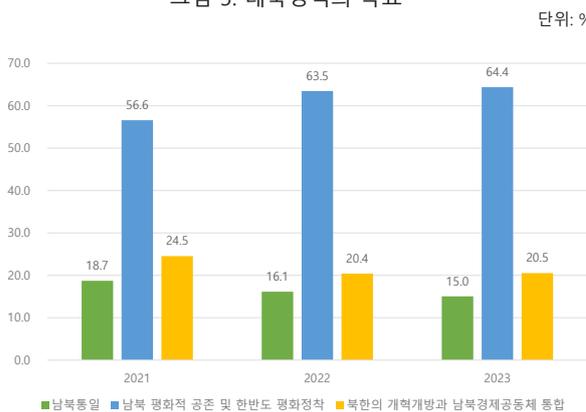
그림 4. 효과적 대북정책의 방식



- 효과적 대북정책의 방식으로는 유엔 등 국제기구와의 협력이 46.9%로 가장 높은 응답률 기록
- 2022년 대비 국제기구와의 협력과 미국·일본과의 협력의 응답률은 상승한 반면 한국의 단독정책 수행 응답률은 하락

대북정책의 목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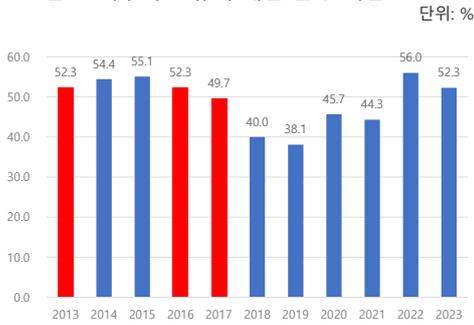
그림 5. 대북정책의 목표



- 대북정책의 목표로는 남북의 평화적 공존 및 한반도 평화정착이 64.4%로 가장 높은 응답률 유지
- 2022년 대비 평화적 공존 및 한반도 평화정착, 북한의 개혁개방과 남북경제공동체 통합 응답률을 상승하였으나 남북통일 응답률은 하락 지속

핵무기 보유에 대한 의견: 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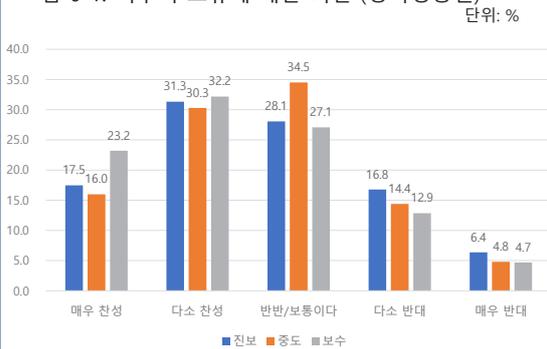
그림 6. 핵무기 보유에 대한 찬성 의견



- 한국의 핵무기 보유를 찬성하는 의견은 52.3%로 2022년 대비 3.7%p 하락
- 2013년 2월 3차 핵실험 이후 2014년과 2015년 핵무장 찬성 의견이 상승하였으나 2016년 9월 5차 핵실험은 핵무장 의견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보임
- 2017년 9월 6차 핵실험의 경우 이듬해 2018년 2월부터 시작된 남북 대화 국면으로 핵실험의 영향을 파악하기 어려움

핵무기 보유에 대한 의견: 정치성향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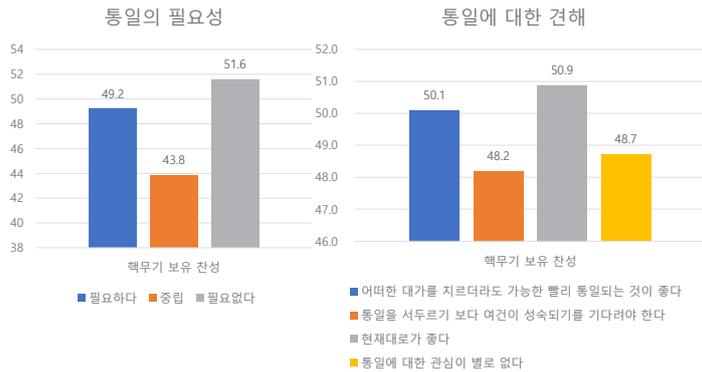
그림 6-1. 핵무기 보유에 대한 의견 (정치성향별)



- 한국의 핵무기 보유에 대하여 찬성하는 의견은 보수(55.8%), 진보(48.8%), 중도(46.3%) 순
- 반면 핵무기 보유에 대하여 중립적인 의견은 중도(34.5%), 진보(28.1%), 보수(27.1%) 순
- 반대 의견은 진보(23.1%), 중도(19.2%), 보수(17.6%) 순

핵무기 보유에 대한 의견: 통일 의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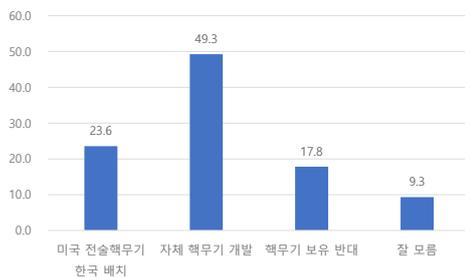
그림 6-2. 핵무기 보유에 대한 찬성 의견 (통일 의식별)
단위: %



- 통일의 필요성 응답별 핵무기 보유를 찬성하는 응답률은 통일이 필요없다 (51.6%), 필요하다(49.2%), 반반/중립 (43.8%) 순
- 통일에 대한 견해별 핵무기 보유 찬성 응답률은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가능한 빨리 통일되는 것이 좋다'(50.1%), '현재대로가 좋다'(50.9%) 등 적극적 견해 보유자 층에서 높은 응답률 기록

핵무장 방식 의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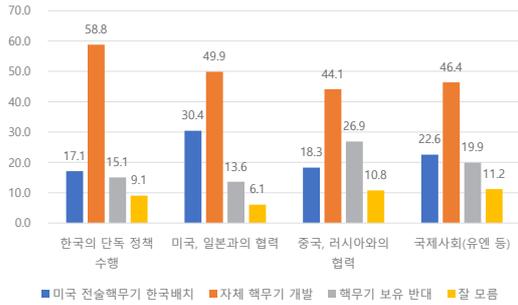
그림 7. 핵무장 방식 의견
단위: %



- 올해 처음 추가된 문항으로 구체적 핵무장 방식에 대해서는 '자체 핵무기 개발'(49.3%), '미국 전술핵무기 한국 배치'(23.6%) 순

핵무장 방식 의견: 대북정책 방식 의견별

그림 7-1. 핵무장 방식 의견: 대북정책 방식 의견별
단위: %



- 대북정책 방식 의견별 핵무장 방식 의견은 다자적 대북정책을 선호하는 층에서는 미국의 전술핵무기 배치를 상대적으로 선호하는 경향
- 자체 핵무기 개발 선호 응답은 독자적 대북정책 수행 선호 층에서 가장 높은 수준 기록
- 중국, 러시아와의 협력 선호 층에서는 핵무기 반대 의견 상대적으로 높음

결론

- 대북정책 만족도
 - ✓ 2023년 대북정책 만족도는 2022년 대비 연령, 정치성향, 지역 등 모든 집단에서 상승
- 대북정책의 효용성 인식
 - ✓ 인도적 대북지원, 사회문화교류, 경제협력, 군사적 억지력 강화 등 대북제재를 제외한 모든 대북정책의 효용성 인식 하락
- 대북정책의 방식
 - ✓ 미국, 일본과의 협력과 유엔 등 국제사회와의 공조 정책 선호는 상승한 반면, 한국 단독 대북정책 선호는 하락
- 대북정책의 목표
 - ✓ 남북 평화적 공존 및 한반도 평화정착을 대북정책의 목표로 인식하는 비율은 상승, 남북통일 목표는 하락
- 핵무기 보유에 대한 의견
 - ✓ 한국의 핵무기 보유에 대한 찬성 의견 소폭 하락
 - ✓ 핵무기 보유 방식에 있어서는 자체 핵무기 개발 최선호



● 주변국인식

김학재

주변국 인식(요약문)

김학재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1. 주변국 친밀감과 위협인식

1) 가깝게 느끼는 국가

미국에 대한 친밀감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2007년 미국에 대한 친밀감이 53%에서 2023년에는 81.5%로 상승했다. 미국 다음으로는 북한에 대한 친밀감이 높은 편인데 2007년에는 24%가 북한을 가깝게 느꼈으나 점차 감소하여 2023년에는 7%만이 북한을 가깝게 느낀다고 답변했다. 일본에 대한 친밀감은 2007년에 11.6%였으나 2022년 5.3%로 낮아졌다가 2023년에는 8.1%로 상승했다. 중국은 2.8%, 러시아는 0.6%의 응답율을 보였다.

2) 위협적인 국가

한국인은 북한에 대한 위협인식이 컸지만 2018년부터 중국에 대한 위협인식이 가장 커졌다. 그런데 올해는 다시 북한에 대한 위협인식이 증가하여 45.8%가 북한을 위협적인 나라로 선택했다. 중국은 2018년부터 위협인식이 증가추세이며 올해 36.8%가 중국을 위협적으로 인식했다. 일본에 대한 위협인식은 2019년 이후 하락하여 2023년에는 8.3%만이 위협적인 국가라고 응답했다. 러시아는 4.6%, 미국은 4.5%만이 위협국으로 인식했다.

2. 주변국에 대한 이미지

1) 미국에 대한 이미지

미국은 주로 협력 대상으로 인식되고 있다. 2022년에 86.1%가 미국을 협력대상으로 본다고 응답해 최고치를 기록하였고, 2023년에는 82.2%가 미국을 협력 대상으로 인식한다고 답했다.

올해 새로 추가한 문항에서 북한의 핵 공격시 미국이 한국을 방어하기 위해 군사조치를 취할 것이냐는 질문에 88.3%가 그렇다고 답하여 방위 공약에 대한 높은 신뢰 수준을 보였다.

2) 일본에 대한 이미지

한국인들은 일본을 주로 경쟁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일본을 경쟁 대상으로 보는 응답이 48.8%로 조사되었다. 일본을 경쟁 대상으로 보는 인식은 2019년 이후 하락하고 있으며 올해 일본을 경쟁 대상으로 본다는 응답은 24.6%가 되었다. 협력 대상인식은 작년의 19.1%에서 22%로 상승했다.

3) 중국에 대한 이미지

중국은 주로 경쟁 대상으로 인식되고 있다. 중국에 대한 경쟁인식은 2015년 이후 상승하는 추세이며 2023년에는 51.6%가 중국을 경쟁 대상이라고 응답했다. 반면 협력 대상국으로서의 인식은 2015년 이후 하락하는 추세이다.

최근 심화되는 북중 협력에 대해서도 우려스러운 시선이 드러났다. 북중협력을 우려한다는 답변이 증가추세이다.(90.6%)

중국의 부상이 한반도 평화에 도움이 될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대체로 부정적인 답변이 우세했는데 2021년에 71.9%가 중국의 부상이 한반도 평화에 도움이 안될 것이라고 응답한데 비해 올해는 63.2%만이 도움이 안될 것이라고 답해 우려스러운 의견이 다소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4) 러시아에 대한 이미지

러시아는 주로 경계 대상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이런 답변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추세이다. 올해 55.6%가 러시아를 경계 대상으로 보았다.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후 적대인식도 다소 상승했으며, 반대로 협력대상인식이나 경쟁대상 인식은 하락하는 추세이다.

3. 한반도에 대한 주변국의 태도 인식

1) 한반도 전쟁시 주변국 태도

한반도에 전쟁이 발발할 경우, 미국은 한국을 도울 것이라는 답변이 가장 높았다. (71.3%) 그리고 낮은 수준이긴 하지만 최근 5년간 일본이 한국을 도울 것이라는 의견이 증가하는 추세로 올해 17.3%가 응답했다. 반면 중국은 북한을 도울 것이라는 의견이 2014년 이후 증가추세이며 올해 55.8%가 그럴 것이라고 응답했다. 러시아도 북한을 도울 것이라는 의견이 32.8%로 작년보다는 낮아졌지만 대체로 상승하는 경향을 이어갔다.

2) 주변국의 통일 희망

국민들은 주변국들이 한반도의 통일을 대체로 희망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었다. 주변국 중에서는 미국이 한반도 통일을 가장 희망하는 편으로 조사되었다. 올해 34.4%가 미국이 한반도의 통일을 희망한다고 응답했다. 2020년 코로나 시기에 가장 낮아진 27% 수준에 비하면 상승한 추세이나 코로나 이전 2019년 52.3%였던 것에 비하면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 이 밖에 중국은 91.9%, 러시아는 90.3%가 한반도 통일을 희망하지 않을 것이라는 인식을 보였고, 일본의 경우 희망하지 않는다는 인식이 높은 편(84.7%)이나 가장 높았던 2020년의 93.1%에 비하면 최근 수치가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3) 주변국의 통일 협조

따라서 주변국의 협조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높은 편이다. 미국의 협조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가장 높은 편으로 94.3%가 미국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중국의 협조 필요성은 그 다음으로 높은 수준이나 2020년의 82.3%에서 다소하락한 74.8%가 중국 협조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일본의 협조 필요성은 전반적으로 하락하는 추세를 보여왔으나, 2020년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 올해는 69.8%가 응답했다. 러시아의 협조 필요성은 하락하는 추세였으나 올해 65.4%로 상승했다.

4. 주변국 협력 필요성 인식

1) 통일을 위한 남북, 한미, 한중 협력

한반도 통일을 위해서 남북, 한미, 한중 협력중 어느 것이 더 중요한지에 대한 질문에, 2018년 이후 남북 협력의 중요성이 다소 하락하는 추세이고, 한미 협력의 중요성은 유지 혹은 증가 추세를 보였다. 올해 남북 협력은 25.8%, 한미협력은 26.7%의 응답율을 보였다. 이에 비해 한중 협력의 중요성은 4.5%로 낮은 편이지만, 남북, 한미, 한중 협력 모두 중요하다는 답변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로 올해 43.1%가 모두 중요하다고 응답했다.

2) 북한 비핵화를 위한 국제 협력

북한 비핵화를 위해서 한미 협력, 한중 협력중 어느 것이 중요한지에 대해서는 상당수가 한중협력(8.4%)보다는 한미 협력(40%)이 더 중요하다고 응답하는 추세가 지속되고 있지만, 모두 강화해야한다는 응답이 2022년까지도 계속해서 가장 높은 수준(51.6%)을 유지하고 있다.

올해에는 한미, 한중 협력외에 한일 협력을 추가하였는데, 한미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는 응답이 50%, 한중협력이 중요하다는 응답이 29.3%, 한일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는 응답이 18.4%였다.

3) 미중 갈등과 국제 협력

미중 경쟁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미중 경쟁에 대한 의견을 물었더니, 앞의 답변들과 유사하게 중국과의 협력(8.9%)보다는 미국과의 협력을 강화해야한다는 높은 편(33%)이지만 전년 대비 7% 감소했으며, 중립을 지켜야한다는 의견도 증가(58.1%)하고 있다.

5. 주변국 인식과 통일인식의 관계

코로나로 인한 단절, 한미일 동맹의 강화, 북중러 협력의 증가, 북한 핵개발 지속과 군사적 위협인식이 증가하는 추세에서 점차 통일인식이 약화되는 모습이 확인되는 추세이다.

이에 따라 점증하는 지정학적 갈등과 주변국인식의 중요성이 통일의식에 어떤 영향을 주는 지를 별도로 통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2011년부터 2023년까지 통일외식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통일 필요성에 영향을 주는 변인으로 주변국 호감도, 주변국 위협인식, 북한 인식, 일본인식, 중국인식을 포함하고, 기타 이념, 연령대, 소득수준, 교육수준, 지지 정당, 국가 자긍심 및 경제만족도 등을 통제변인으로 하여 회귀 분석을 실시한 결과.

시기에 상관없이 지속적으로 연령대가 높을수록, 국가 자긍심이 높을수록, 북한을 대화와 협력이 가능하다고 생각할수록, 주변국 중에 북한에 대한 호감도가 있을수록 통일이 필요하다고 응답할 가능성이 높았다.

반면, 지속적이지는 않지만, 간간히 지정학 인식이 통일인식에 부정적 영향을 주었다. 예컨대 최근에는 2016년 북한의 6차 핵실험 이후 북한에 대한 위협인식이 높을수록, 중국에 대한 위협인식, 중국에 대한 경쟁, 경계 인식이 높을수록 통일 인식에 부정적 영향을 주었고, 일본에 대한 호감도는 통일인식을 낮추고, 경계인식은 통일인식을 높이는 것이 확인되었다. 이밖에 소득수준이 높을 경우 통일인식이 낮아졌다. 즉 중국의 부상과 한미일 동맹의 강화 등 지정학적 변화에 대한 인식 속에서 통일인식에 부정적 상관관계가 확인되었다.

한편에선 세대에 따라 민족주의와 북한인식이 지속되는 모습, 그리고 다른 한편에선 최근 심화된 지정학 갈등과 위협 그리고 증가된 소득수준이 통일의 필요성을 약화하는 모습이 확인되었다.

6. 결론과 함의

- 1) 미국의 친밀감 상승 추세가 지속되고 있고 동맹 신뢰도도 매우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 2) 전반적으로 한미일 동맹 인식이 증가하고, 북중러 위협 인식은 증가한 추세가 심화되고 있다.
- 3) 일본 인식이 2019년 이후 2023년까지 4년째 긍정적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
- 4) 전반적으로 미국과의 협력을 훨씬 더 중시하고 있지만 미중갈등시 중립의견도 증가하고 있다.
- 5) 주변국 인식 중에서 북한에 대한 긍정적 인식은 지속적으로 통일 인식에 긍정적 상관관계가 있고, 일본, 중국에 대한 국민의 인식과 판단은 때때로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다.
- 6) 향후 전통적 안보위협이 커지고 안보 딜레마가 심화되는데 지정학적 위협이 해소되지 않는 경우 진영화된 위협인식은 통일 인식을 지속적으로 약화할 가능성이 있고
- 7) 통일 인식재고를 위해서는 대외적으로는 지정학 위협을 낮추기 위한 외교적 노력과, 대내적으로는 소득, 세대변화로 인한 사회경제적 문제해결과 여론 설득에도 상당한 노력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

한국의 주변국 관계 인식

김학재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2023년의 주변국인식 여론

2023년 조사의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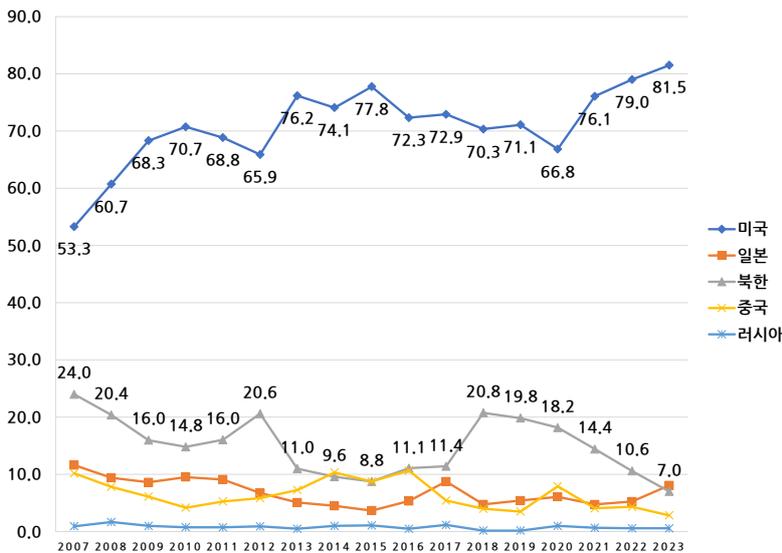
- 윤석열 정부 2년
-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핵기술 고도화
- 한일관계 개선 노력
- 한미동맹 & 정전협정 70주년
- 신규 항목 추가 (북핵관련)

2023년 분석 내용

- ① 주변국인식 추세 변화 비교
- ② 주변국인식과 통일의식 관계
- ③ 결론과 함의

1. 주변국 인식 추세 (2007 ~ 20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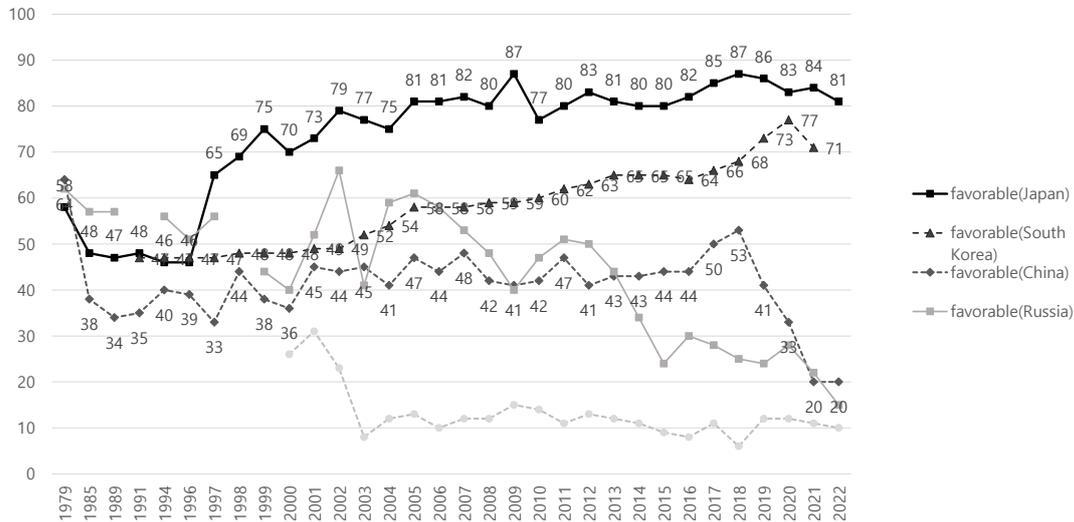
1. 주변국 친밀감 (2007~2023)



- 미국에 대한 친밀감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중
- 2007년 53%에서 2023년 81.5%
- 북한 친밀감이 2007년 24%에서 조금씩 감소하여 2023년 7.0%
- 일본 친밀감은 2007년에 11.6%에서 점차 하락했다가 2022년 5.3%에서 2023년 8.1%으로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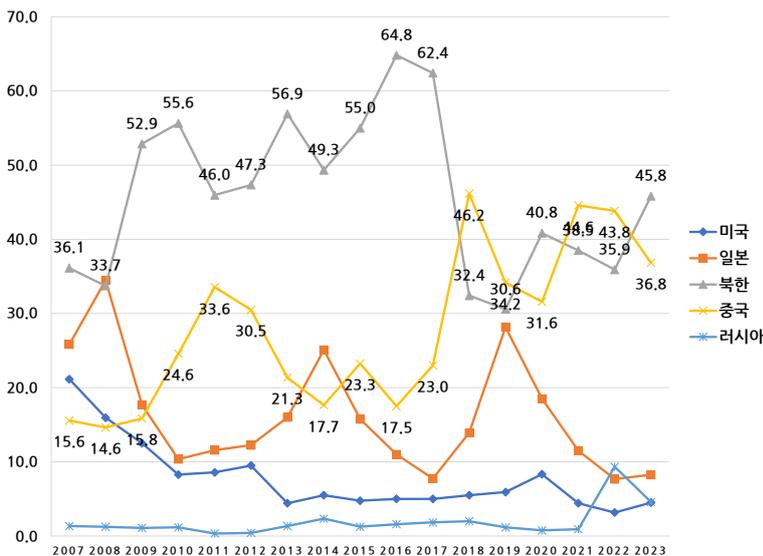
1. 주변국 친밀감 (1979~2022)

• 미국의 동북아 국가들에 대한 호감도 변화 (1979~2022)



출처 : Gallup Global Attitude Surve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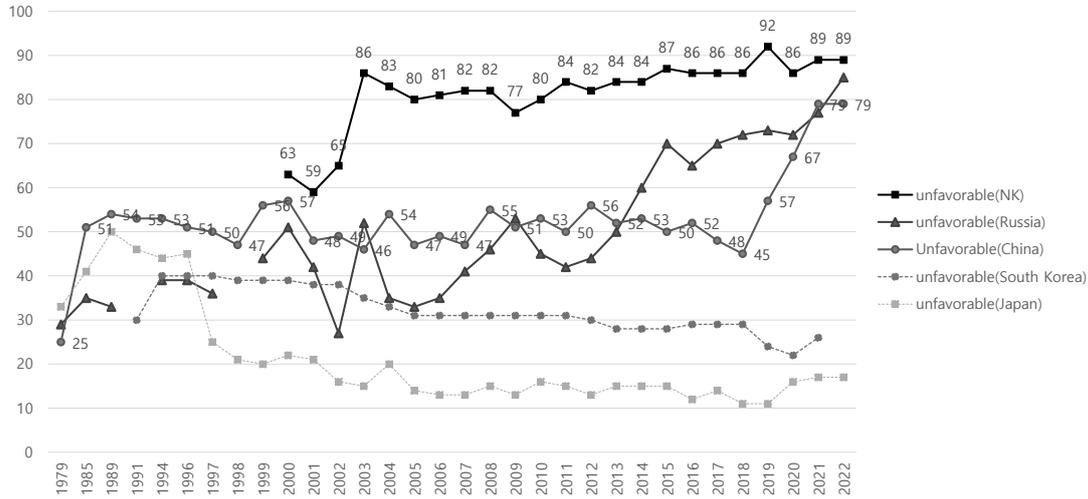
2. 주변국 위협인식 (2007~2023)



- 북한에 대한 위협인식이 컸으나, 2018년부터 중국 위협 인식 증가
- 북한 2007년 36% ⇨ 2023년 45.8% (↑)
- 중국 2007년 15% ⇨ 2023년 36.8%, 2018년부터 증가 추세
- 일본 2007년 25% ⇨ 2023년 8.3% (↓)
- 2023년 러시아 4.6%
- 위협인식은 특정 국가의 위협인식 증가시 다른 국가의 위협인식이 하락하는 제로섬적 특성

2. 주변국 위협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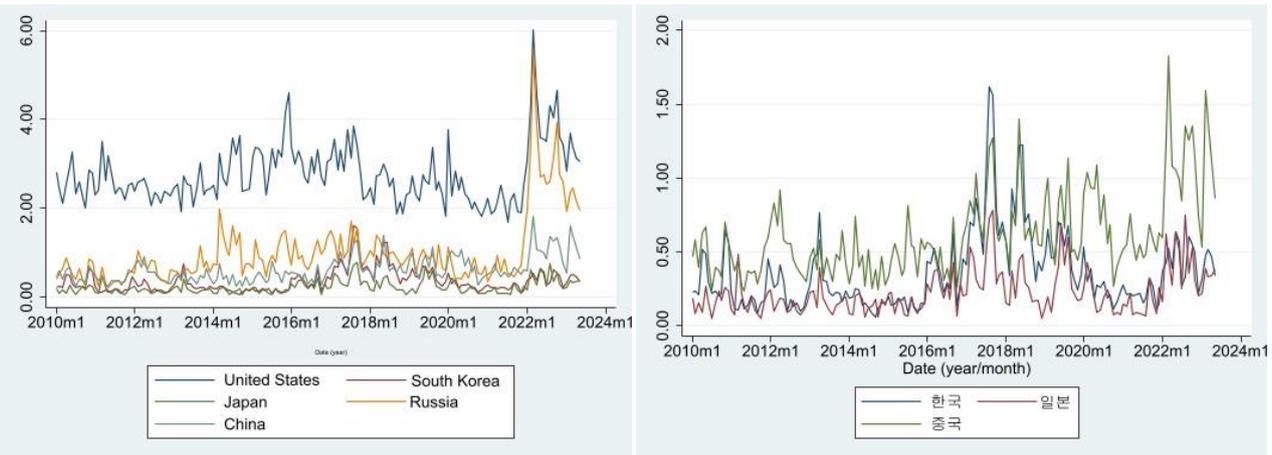
- 미국의 동북아 국가들에 대한 비호감도 (1979~2022)



출처 : Gallup Global Attitude Survey

2. 주변국 위협인식

- 미국, 중국, 러시아, 한국, 일본의 지정학 위기 수준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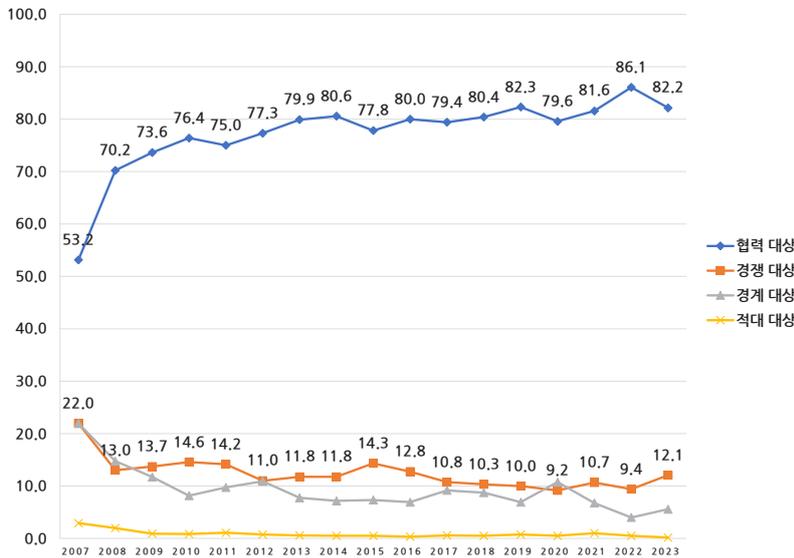


- 2022년 미, 중, 러 지정학 위기 지표 상승

Source : https://www.matteociacoviello.com/gpr_country.htm

- 2016~2018 한중일 지정학 위기 지표 상승
- 2022년 이후 중국의 위기 지표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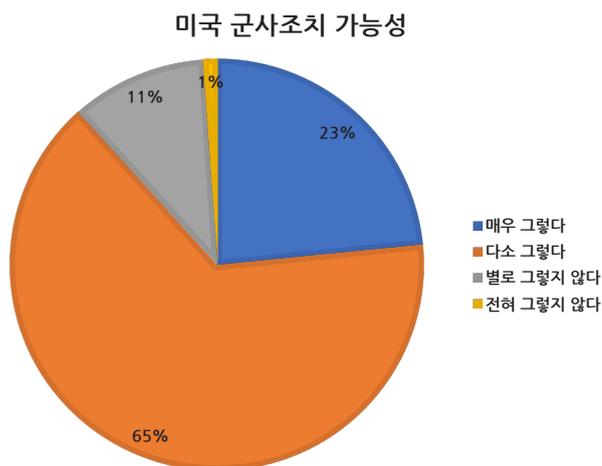
3. 미국에 대한 인식



- 미국은 주로 '협력대상' 인식이 증가하는 추세
- 2022년 최고수준에 도달하고 2023년에는 82.2%

2. 미국에 대한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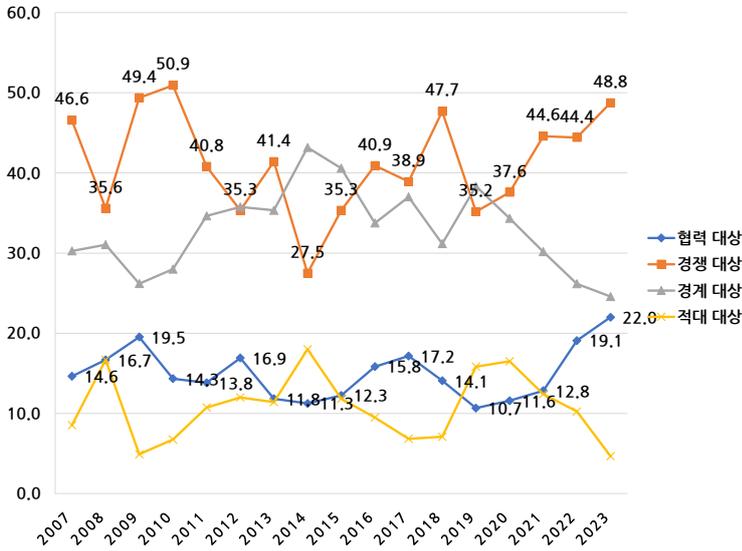
- 북한 핵 공격시 한국 방어를 위한 미국의 군사조치 가능성



- 최근 북한의 핵무장, 군사도발이 증가하는 추세
- (신규) 북한의 핵 공격시 미국이 한국 방어를 위해 군사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질문
- 미국이 군사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답변이 88.3%
- 방위 공약에 대한 신뢰도 높은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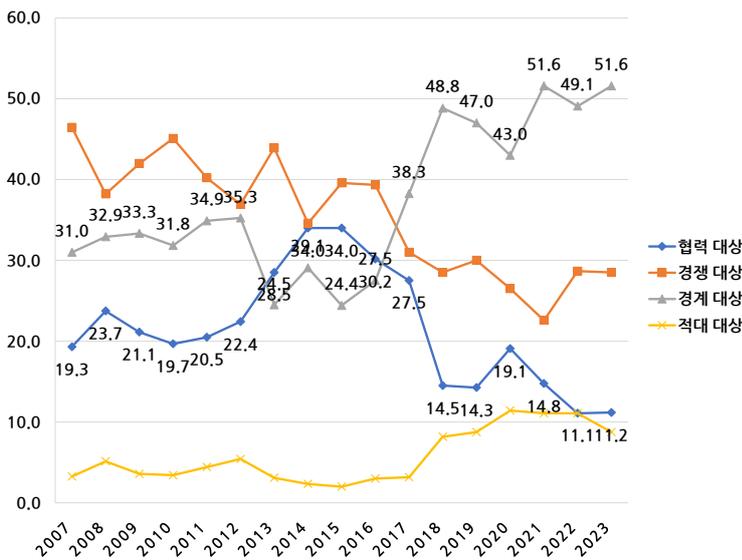
※ 2023 KINU 통일의식조사 결과에서 미국 확장억제 정책에 대한 신뢰 72.1% 수준

4. 일본에 대한 인식



- 일본은 주로 경쟁대상으로 인식
 - 경계대상 인식은 하락하고 있으며, 협력 대상 인식이 5년째 상승
 - 일본인식이 2019년이후 4년째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하는 중
- ① (한반도 전쟁시) 한국을 도울 것
 - ② 한반도 통일 희망
 - ③ 한반도 통일에 대한 일본의 협조 필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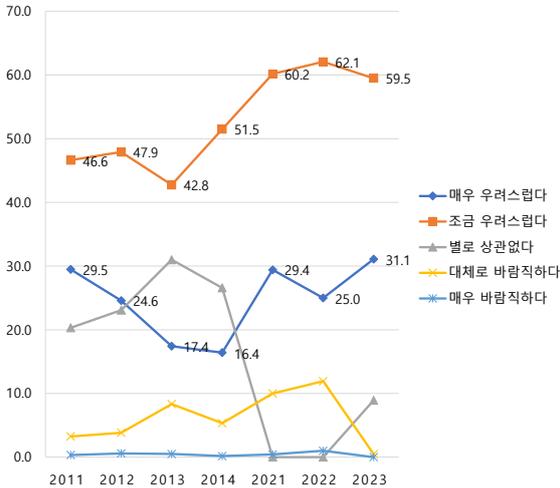
5. 중국에 대한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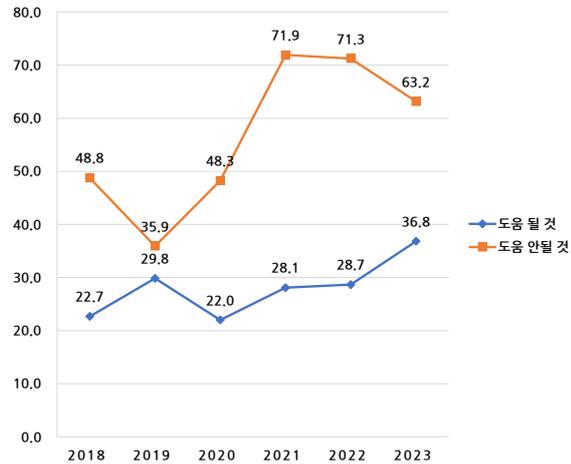
- 중국은 주로 경계대상으로 인식
- 2015년 이후 경계대상 인식이 상승하는 중
- 2023년 51.6%가 경계 대상 응답
- 협력 대상 인식은 2015년 이후 하락하는 추세

5. 중국에 대한 인식

• 북중 협력 우려스럽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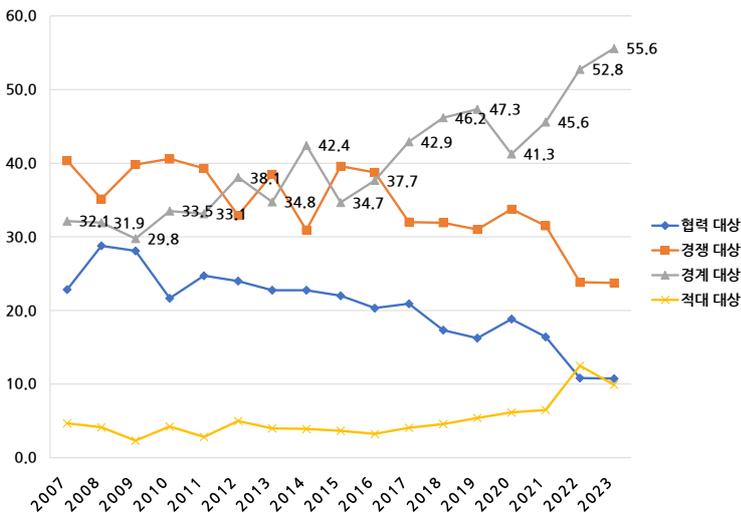
• 중국의 부상과 한반도 평화



- 북중협력 우려스럽다는 답변 증가 추세 (90.6%)
- 중국의 부상이 도움 안될 것이라는 답변 감소, 다소 도움이 될 것(36.8%) 답변 증가

6. 러시아에 대한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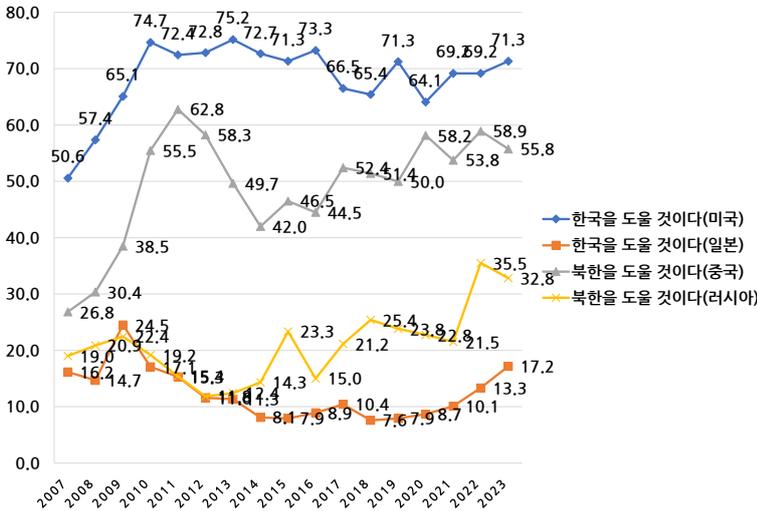
• 한국의 러시아에 대한 인식 (2007~2023)



- 러시아는 주로 경계대상으로 인식
- 경계대상 인식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추세
- 최근 적대 대상 인식도 다소 상승
- 협력 대상 인식은 하락하는 추세

7. 한반도에 대한 주변국 태도 인식: 전쟁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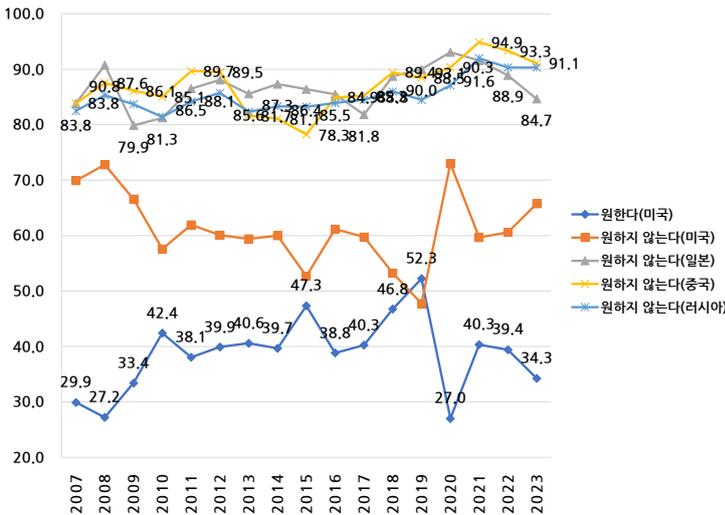
• 한반도 전쟁시 주변 4국의 태도 (2007~2023)



- 한반도 전쟁시,
- 미국은 한국을 도울 것이라는 답변이 가장 높음 (71.3%)
- 최근 5년간 일본이 한국을 도울 것이라는 의견 증가중 (17.2%)
- 중국은 북한을 도울 것이라는 의견이 2014년 이후 상승하는 추세 (55.8%)
- 러시아도 북한을 도울 것이라는 의견이 상승하는 양상 (32.8%)

7. 한반도에 대한 주변국 태도 인식 : 통일희망

• 주변국의 한반도 통일 희망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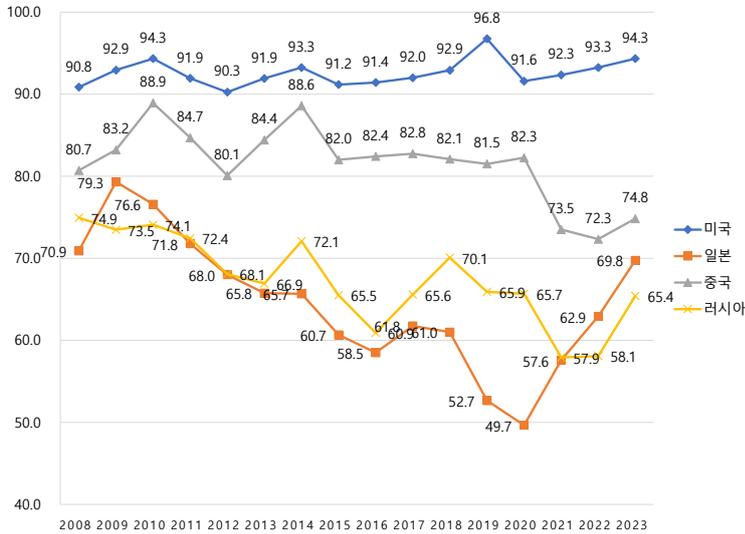


- 주변국 중에서는 미국이 한반도 통일을 가장 희망하는 편 (34.3%)
- 2019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였으나 2020년에 하락후 다시 상승
- 중국(91.9%), 러시아(90.3%)는 통일을 희망하지 않는 것으로 인식
- 일본이 통일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인식이 최근 하락하는 추세(84.7%)

7. 한반도에 대한 주변국 태도 인식 : 협조필요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The Institute for Peace and Unification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 주변국의 한반도 통일 협조 필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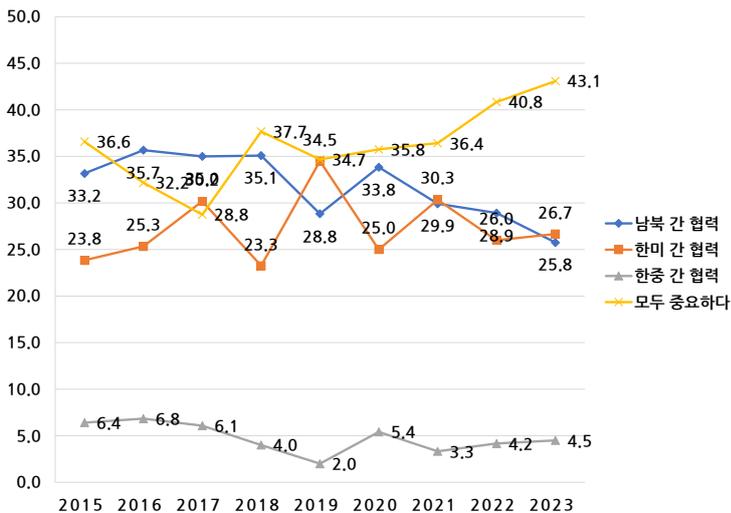


- 통일을 위해서는 미국의 협조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가장 높은 편 (94.3%)
- 중국의 협조 필요성이 다음으로 높으나 2020년 이후 다소 하락 (74.8%)
- 일본의 협조 필요성이 2020년 이후 상승하는 추세(69.8%)
- 러시아의 협조 필요성은 하락하는 추세였으나 올해 상승(65.4%)

8. 주변국 협력의 중요성 : 남북, 한미, 한중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The Institute for Peace and Unification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 남북, 한미, 한중 협력의 중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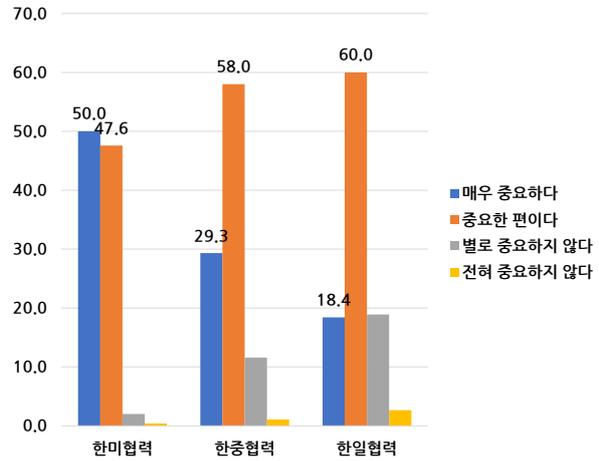
- 남·북협력, 한·미협력, 한·중협력중 가장 중요한 것은
- 한·미협력(26.7%)
- 남·북협력(25.8%)
- 한·중협력(4.5%)
- 모두 중요하다(43.1%)

8. 주변국 협력의 중요성 : 북한 비핵화

• 북한 비핵화를 위한 국제협력 (2018~20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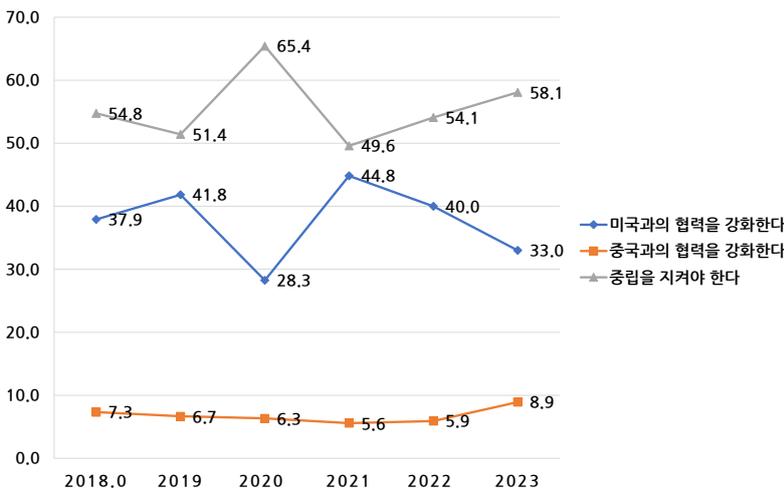
• 북한 비핵화를 위한 국제협력 (2023)



- 북한 비핵화를 위해서는 한미 협력이 필요 40% 한중 협력이 필요 8.4% 모두 강화해야 한다 51.6%
- 한미협력이 매우 중요 50%, 한중 협력 29.3%, 한일 협력 18.4%

8. 주변국 협력의 중요성 : 미·중 갈등

• 미중 갈등에 대한 인식



- 미·중 갈등에 대한 인식
- 미국과 협력 강화해야한다 2022년 40%에서 2023년 33%로 감소
- 중립을 지켜야 한다는 답변 58.1%로 증가

소결

- 미국에 대한 호감도, 협력 인식, 동맹 신뢰도 최고 수준
- 올해는 한·미·일 동맹인식은 증가하고 북·중·러 위협 인식은 다소 증가한 추세
- 일본 인식이 2019년 이후 4년째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하는 중
- 중국에 대한 인식이 2016년 이후 협력→경쟁 인식으로 전환되었고 2023년에 한반도 평화에 대한 긍정 의견 다소 증가
- 러시아 인식은 협력↓ 경계↑ 추세 지속
- 미국과의 협력을 중시하지만 미·중 갈등에서 중립 의견도 증가

2. 주변국인식과 통일인식의 관계

9. 통계적 분석 : 주변국 인식과 통일 인식

- 최근 코로나로 인한 단절, 한미일 동맹강화, 북중러 교류 증가, 북한 핵개발 지속으로 인한 위협 인식의 증가와 통일인식의 약화 추세
- Q. 주변국 인식은 통일 인식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을지?
- 데이터 : 2011년부터 2023년까지의 통일의식조사 자료
- 종속변인 : 통일 필요성
- 설명변인 : 주변국 호감도, 주변국 위협인식, 북한인식, 일본인식, 중국인식
- 통제변인 : 이념, 연령대, 소득수준, 교육수준, 지지정당, 대통령직무평가, 국가 자긍심, 경제만족도

9. 통계적 분석 : 주변국 인식과 통일 인식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이념		○	○	○	○				○	○		○	
정당	민주당		민주당			정의당 무당파	정의당					무당파	국민의당
대통령					○			○	○	○	○		
연령대	○	○	○	○	○	○	○	○	○	○	○	○	○
소득				○	○	○	○	○	○	○	○	○	○
교육수준		○	○	○	○	○	○	○	○				
경제만족도	○							○			○		
국가 자긍심	○	○	○	○	○	○	○	○	○	2020이후는 국가자긍심 변수 미포함			
북한대화협력	○	○	○	○	○	○	○	○	○	○	○	○	○
북핵 위협						○	○	○	○	○	○	○	○
북한 비핵화						○	○	○					○
일본 호감		○		○			○						
북한 호감	○	○		○		○	○	○	○	○	○	○	
중국 호감						○			○				
일본 위협	○												
북한 위협	○												
중국 위협			○					○					
일본 인식		○				○			○				○
중국 인식			○	○		○	○	○	○	○		○	○

※ 통계적 상관관계가 있는 경우에만 표시 하였음, 상세한 분석 내용은 추후 출간 예정

9. 통계적 분석 : 주변국 인식과 통일 인식



- **긍정적 관계** : 연령대, 국가 자긍심, 북한 대화 협력 가능, 북한 호감도는 통일인식에 지속적으로 긍정적 영향
- **부정적 관계** : 소득수준, 2016년 6차 핵실험 이후 북핵 위협 인식, 중국 부상과 중국 위협인식 등은 통일 인식에 부정적 영향, 일본 인식(호감, 경계)도 간간히 긍정, 부정적 영향
- 즉 세대 인식, 민족주의는 통일 인식에 긍정적 ↔
- 심화된 지정학 갈등과 위협, 증가된 소득수준은 통일 인식에 부정적

10. 결론



- 1) 미국의 친밀감 상승, 선호도, 동맹 신뢰도 매우 높은 수준 유지
 - 2) 전반적으로 한미일 동맹 인식이 증가하고, 북중러 위협인식은 증가한 추세
 - 3) 일본 인식이 2019년 이후 4년째 긍정적 방향으로 변화하는 중
 - 4) 미국과의 협력을 훨씬 더 중시하지만 미중갈등시 중립의견도 증가
 - 5) 북한, 일본, 중국에 대한 국민의 인식과 판단이 통일 인식에 긍정적,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음
- 지정학적 위협이 해소되지 않는 한, 진영화된 위협인식이 통일 인식을 약화할 것이고, 핵무장 여론이 심화되는 등 전통적 안보위협이 커지고 안보 딜레마가 심화될 가능성.
 - 통일인식 재고를 위해서는 지정학 위협을 낮추기 위한 역량과 현실적 실익을 고려한 외교적 노력이 필요한 시기
 - 국내에서는 소득, 세대차로 인한 문제해결과 여론 설득에도 상당한 노력이 필요



● 북한이탈주민인식

조현주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 (요약문)

조현주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1.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친근감

-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친근감은 19%로 역대 최저치로 하락 (2022년 지난해 대비 4%p 감소). '친근하지 않다'는 31.8%로 지난해 (32.3%)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으며, '반반/보통이다'는 의견은 49.2%로 지난해 대비 4.5%p 상승.
- 한국거주 이주민에 대한 친근감과 비교: 미국인(39.6%)> 동남아시아인 및 남아시아인(31.4%)> 일본인(22.3%)> 조선족(21.1%)> 북한이탈주민(19%)> 고려인 (14.7%)> 중국인(11.4%)> 중동인(6.8%) 순서로 나타남.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친근감 감소는 동남아시아인 및 남아시아인에 대한 친근감이 전년 대비 8.2%p 상승한 것과 대조됨.
- 북한이탈주민과의 관계유형에 따른 사회적 거리감은 결혼 상대자(52%)> 지역대표 (48.3%)> 학교 교사(45.2%)>사업 동업자(35.3%)> 직장 동료 (14.9%)> 동네 이웃(13.8%) 순서로 나타남.
- 연령이 높을수록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친근감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임. 북한이탈주민에 대해 친근감을 느끼는 정도 : 19-29세(15.5%), 30-39세(17.5%), 40-49세(20.1%), 50-59세(20.4%), 60세 이상(20.3%).

2. 북한이탈주민 정부지원정책에 대한 인식

-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부정적인 인식이 전년 대비 5.5%p 상승하여 역대 최고 수준인 62.5%를 기록. 반면, '동의한다'는 의견은 전년에 비해 5.5%p 감소 (43% → 37.5%).

3. 북한이탈주민 수용도

- 북한이탈주민 중 '원하는 사람들은 모두 받아들여야 한다'는 의견은 최근 2년 동안 상승하여 올해 32.5%를 기록 (2021년 26.3%, 2022년 29.2%). '원하는 사람들 중에서 선택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의견은 2021년 (59.5%) 이후 감소추세로 올해 53.3%를 기록. '더이상 받아들여서는 안된다'는 의견은 올해 14.2%로 2020년 이후 비슷한 수준을 유지 (2020년 15.1%, 2021년 14.0%, 2022년 15.1%).
- 연령이 높을수록 북한이탈주민 수용도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임. 북한이탈주민 중 '원하는 사람을 모두 받아들여야 한다'는 의견에 찬성하는 비율: 19-29세(24.3%), 30-39세(31.5%), 40-49세(30.5%), 50-59세(35.4%), 60세 이상(38%).

4. 종합

- 북한이탈주민 수용도에 대한 긍정적인 응답이 증가하였으나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친근감이 감소하고 지원정책 확대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상승함.
- 올해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 (친근감, 수용도, 지원정책 증대)의 변화와 주요하게 관련된 요인들로는 북한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증가,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감소,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인식 등을 살펴볼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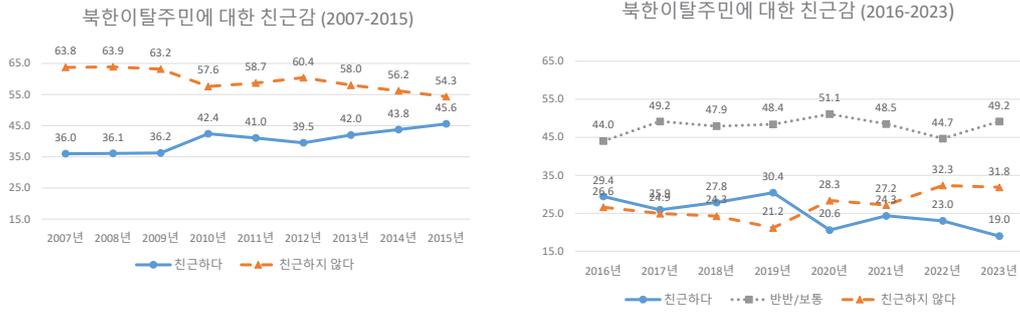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조현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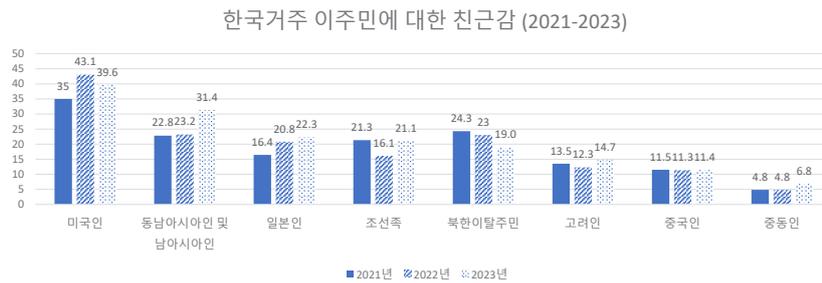
2023년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

-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친근감 정도
- 북한이탈주민 수용도
- 북한이탈주민 지원 확대에 대한 지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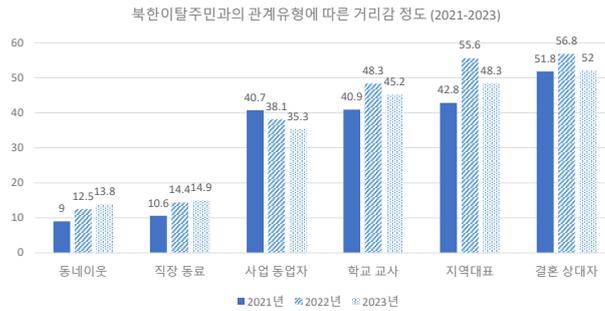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친근감 (2007-20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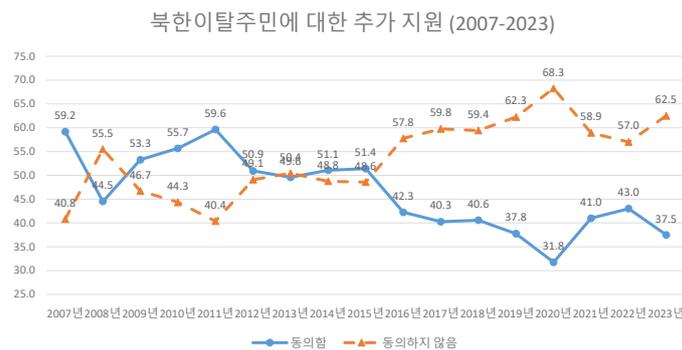
한국거주 이주민에 대한 친근감 (2021-20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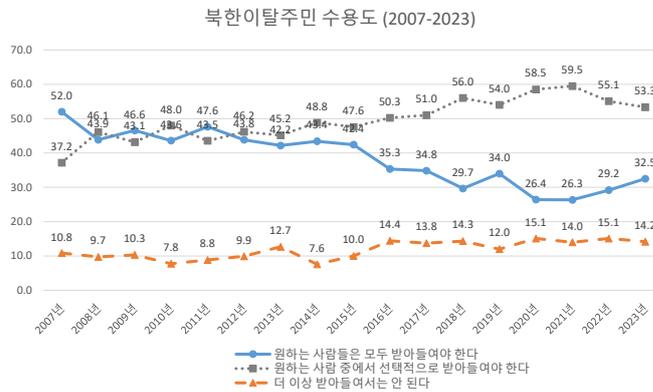
북한이탈주민과의 관계유형에 따른 거리감 정도 (2021-2023)



북한이탈주민 지원정책 (2007-2023)



북한이탈주민 수용도 (2007-20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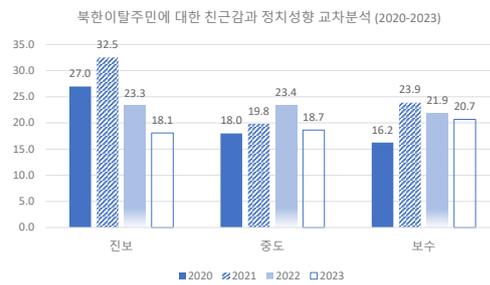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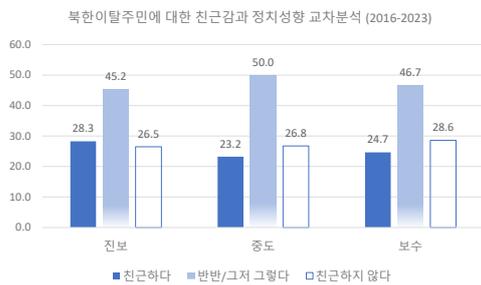
2023년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

-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친근감 정도
- 북한이탈주민 수용도
- 북한이탈주민 지원 확대에 대한 지지도
-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친근감이 감소하고 북한이탈주민 지원 확대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부정적인 의견이 상승함. 북한이탈주민 중 '원하는 사람들은 모두 받아들여야 한다'는 수용도에 대한 긍정적 의견은 상승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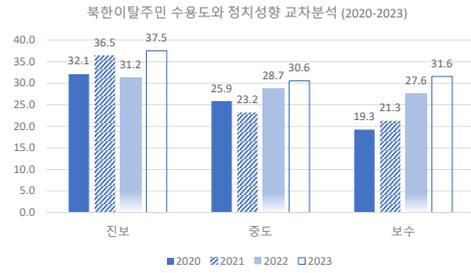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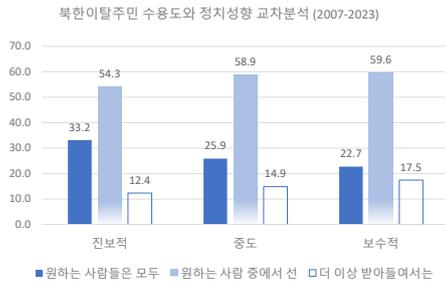
북한이탈주민 인식 (세대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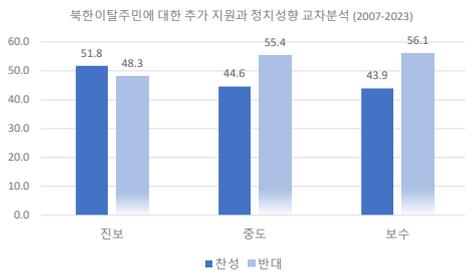
북한이탈주민 인식 (친근감)과 정치성향



북한이탈주민 인식 (수용도)과 정치성향



북한이탈주민 인식 (지원증대)과 정치성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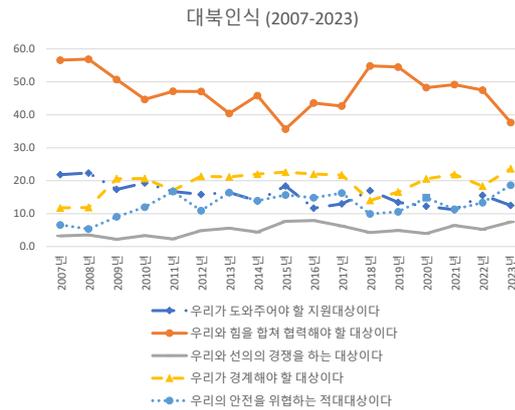


2023년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

- 북한에 대한 인식
- 통일에 대한 인식
- 북한인권에 대한 인식과 태도
- 세대, 정치성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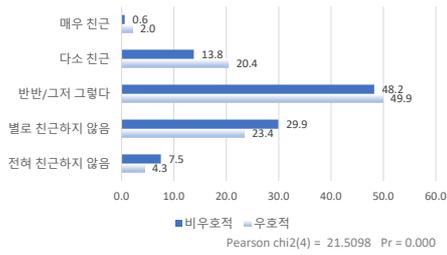
북한에 대한 인식

- 북한에 대한 인식
 - 북한에 대한 인식이 북한주민이나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으로 전이
 - 또는 남북관계의 변화와 같은 대외적인 변수에 의해 영향 받는다
- 2023년 통일의식조사에 따르면, 북한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조사 이래 가장 높은 수준
 - 지원대상 (-3%p)
 - 협력대상 (-9.8%p)
 - 선의의 경쟁 (+2.3%p)
 - 경계 대상 (+5.3%p)
 - 위협 대상 (+5.3%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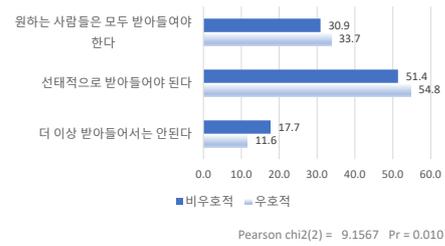


북한에 대한 인식

북한이탈주민 친근감과 대북인식 교차분석 (20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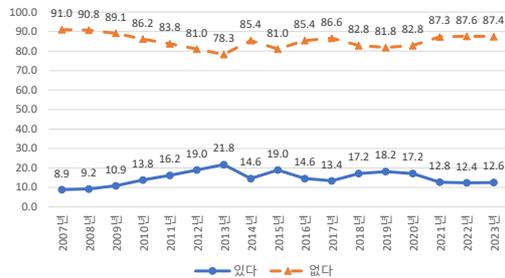
북한이탈주민 수용도와 대북인식 교차분석 (20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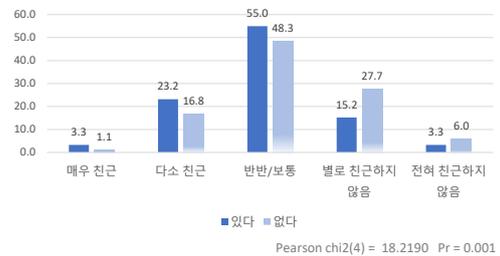
북한경험 정도

- 북한 및 북한이탈주민 관련 경험이 많은 사람일수록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이 낮아진다

북한이탈주민과의 만남 (2007-20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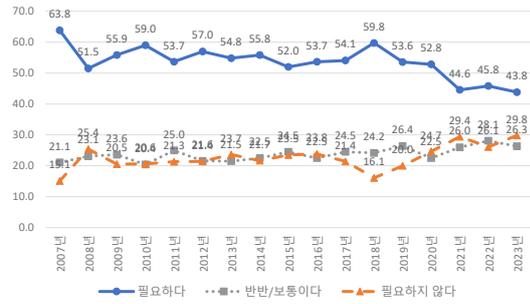
북한이탈주민 친근감과 북한주민을 만나 본 경험 유무 교차분석 (2023)



통일의 필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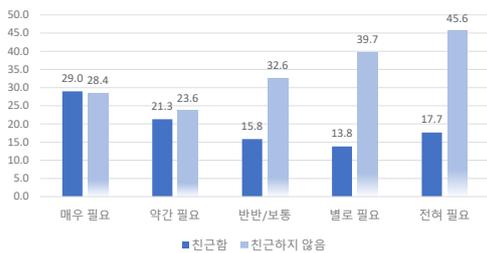
- 통일의 필요성
 - 통일의 필요성에 강하게 동의할수록,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이 낮다
 - 2023년 통일의식조사에 따르면,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부정적 인식 역대 최고치로 상승
 - 통일에 대한 견해에 대하여 남북한이 분단된 '현재대'가 좋다는 의견이 역대 최고치로 상승

통일의 필요성 (2007-20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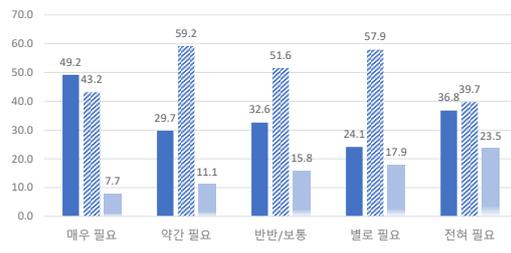
통일의 필요성

북한이탈주민 친근감과 통일의 필요성 교차분석 (20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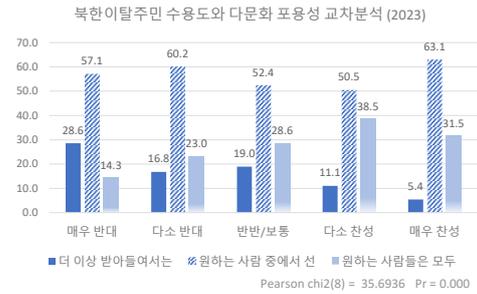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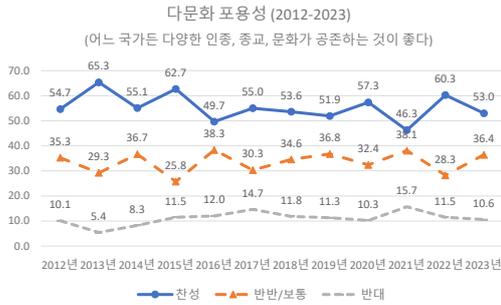
Pearson chi2(16) = 86.8398 Pr = 0.000

북한이탈주민 수용도와 통일의 필요성 교차분석 (20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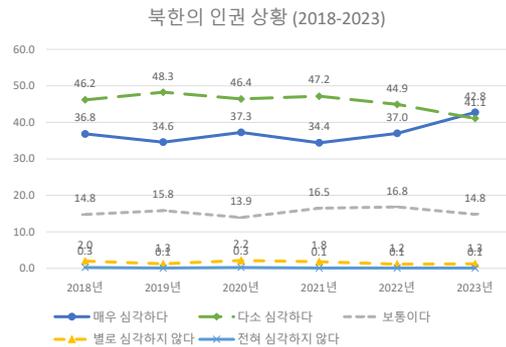
Pearson chi2(8) = 48.0518 Pr = 0.000

다문화 포용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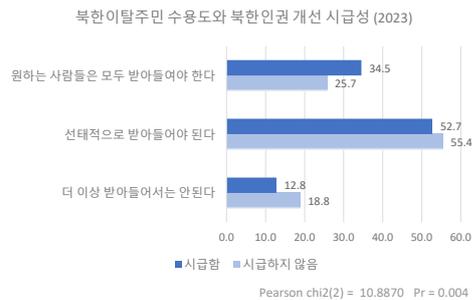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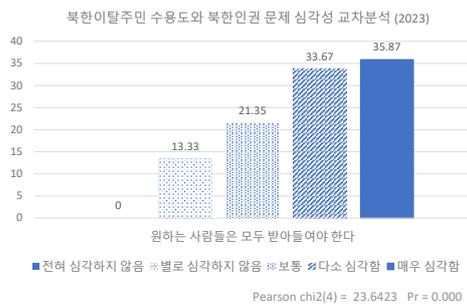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태도

-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태도
 - 북한인권 문제에 대해 적극적인 태도를 가질수록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보일 가능성이 높아진다
- 북한인권의 상황 심각성
- 북한인권 개선 시급성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태도



종합

- 2023년 통일의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친근감이 감소하고 북한이탈주민 지원정책 확대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부정적인 의견이 상승함. 북한이탈주민 수용도에 대한 긍정적인 응답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인권이라는 보편적 차원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일부 이해될 수 있음.
- 2023년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
 - > 북한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상승
 - >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상승
 - >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심각성 상승
 - > 세대, 정치성향



● 토론문

정은미

차정미

통일의식, 대북정책인식, 북한에 대한 인식 토론편

정은미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

1. 통일의식

- 2030집단의 통일 필요성 공감대 낮은 이유와 5060집단의 공감대 높은 이유 비교분석 필요
 - 통일 필요성 공감 하향세 지속, 최저 수준(43.8%), 대결적 남북관계 지속 속 예고된 결과
 - '필요없다' 응답률 29.8%은 우리 국민 10명 중 3명은 필요없다고 응답, 어떤 인구 구성원이 필요 없다고 응답했는지 심층분석 필요
 - 찬성도 반대도 하지 않는 중간지대에 머물러 있는 응답자들(26.4%)은 남북관계 및 한반도 정세 변화에 따라 유동적
 - 20대와 30대에서 부정적인 응답이 증가하는 추세가 지속되는 이유는 통일이 필요한가에 대한 동기부여가 약화, 반대로 50대~60대에서 통일의 필요성이 여전히 높게 유지되는 이유를 정확히 분석해낸다면 2030세대의 통일 공감대 제고 가능
 - 핵심은 각각의 연령 집단이 '북한'을 어떤 대상으로 인식하는가의 차이, 그러한 인식 형성에 영향을 미친 요인들(역사적 경험, 주요 정보 획득의 미디어 유형(채널)의 차이, 교육 기회의 차이 등) 분석
- 현상 유지 vs. 통일 선호 응답 분포 '통일의 필요성' 응답과 비슷한 구조
 - 점진적 통일 선호 45.2%, 통일 필요 43.8%
 - 현상유지 선호 28.2%, 통일 불필요 29.8%
 - 남북간 적대수준 최고조, 북한의 호전적 태도(핵무력 고도화), 한미일-북러중의 대결구조 속에서 현상유지 비율 높다고 보기 힘들
 - 통일에 관심없다는 적극적 태도 응답자 9.9%의 반대=91.1%는 관심있다?
- 통일 불가능 33.3% vs. 통일 가능 66.9%
 - 통일 불가능 응답 비중 2007년 이래 가장 높은 수준인 것은 우려 결과
 - 하지만 여전히 나머지 66.9%(5년 이내 1.0%+10년 이내 6.2%+20년 이내 14.8%+30년 이내 14.7%+30년 이상 30.2%)는 통일이 가능할 수 있다는 희망 견지하고 있다는 것에 주목
- 현 정부는 통일의 과정보다는 최종 통일국가의 형태에 더 관심
 - 현재 국제질서 및 남북관계를 가치와 체제 경쟁 관점 하에서 정책의 정당성을 찾고 있는 태도 뚜렷
 - 헌법 제3조와 제4조를 기반으로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질서에 입각한"한반도 완전 통일 외에 다른 옵션의 통일국가 형태 불수용 의지 분명

2. 대북정책 인식

- 대북정책 만족도 모든 정치성향에서 만족도 상승했다는 점이 핵심
 - 북한의 핵무력 고도화 및 군사적 도발 지속에 대한 적절한 대응 부재에 대한 불만도 높았음을 시사

- 남북대화 실종 장기화 전망 속 대북정책 패러다임의 변화 불가피
 - 인도적 지원, 교류협력 중심의 기존 대북정책 유효기간 만료 상태
 - 최근 국내 대북NGO 단체에서도 인도적 지원 중심의 패러다임 종식 선언, 국제기구 또는 국제NGO와의 공조를 통한 지속가능한 개발협력 방식으로 전환 필요성 제기
 - 효과적인 대북정책의 방식으로 국제기구와의 협력이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인 것은 남북관계 대결국면의 장기화를 국민도 예상
 - 대북제재 효용성에 대해 가장 낮은 응답률 주목, 북중러 밀착으로 향후 대북제재 효용성은 더욱 낮아질 전망
 - 대북정책 중 경제협력 효용성 가장 높게 나타나지만 당분간 남북간 경제협력 추진 가능성은 전무(통일부 남북교류협력국 폐지)
- 평화 인식론의 대립 구도, 대북정책의 목표와 수단의 부정합성
 - 현 정부는 '힘에 의한 평화'가 진정한 평화라는 인식이고, 나머지 수단에 의한 평화는 '가짜평화' '위장평화'라는 평화 인식론이 대립 상태
 - 국민의 대북정책 목표는 '남북의 평화적 공존 및 한반도 평화정착'이 가장 높은 응답률로 나타나, '힘에 의한 평화'로 평화적 공존 및 평화정착의 목표 실현할 수 있는가는 도전적 과제

3. 북한에 대한 인식

- 현재 남북관계 및 한반도 주변정세가 대북 인식에 그대로 반영
 - 남북대화 중단, 북한의 무력시위 지속, 한미일 대북압박 상승, 신냉전체제로의 국제질서 재편 등은 북한을 적대 또는 경계대상으로 보는 인식 강화
 - 2018년에는 예외적으로 김정은 정권을 대화와 타협의 상대로 인정하는 응답률이 최고조, 남북정상회담 개최 및 남북대화의 지속성이 김정은 정권에 대한 신뢰도에 미치는 영향력 크다는 것 방증
- 북한의 핵무력 고도화에도 불구하고 대남 무력도발 가능성 인식 소폭 상승
 - 2017년 6차 핵실험, ICBM '화성-15형' 발사시험 시기에 북한의 대남 무력도발 가능성 최고조
 - 2021년 북한 8차 당대회에서 채택된 '국방력발전5개년계획' 이후 무력 증강에 따른 위협성은 훨씬 더 높아졌으나 2017년 수준을 추월하지 않아 '위험의 일상화' 뚜렷
- 북한의 인권상황 심각성 인식 최근 2년간 크게 상승은 정권교체에 의한 정책 우선순위 변화에 따른 국민 관심 증대의 결과
 - 2022년을 기점으로 이전과 이후에 북한의 인권상황을 급격히 악화시킬 변인을 특정하기 어려우며, 대북제재.코로나19 방역.국경 봉쇄에 따른 북한 내부의 인권 상황 악화된 것은 2020년부터 시작
 - '반사회주의, 비사회주의 현상'에 대한 사회통제가 강화된 것 역시 2021년 8차 당대회 이후 본격화
 - 따라서, 북한의 인권상황 심각하다는 인식이 최근 2년간 크게 상승한 것은 이 기간 인권을 더 심하게 악화시키는 요소들이 증가하였 다기보다는 정권교체에 따른 정책의 우선순위(인권 강조) 변화에 따른 국민 관심 높아진 결과 작용

주변국 인식, 북한이탈주민 인식 토론문

차정미 (국회미래연구원)

1. 통일 인식 변화 해석 : What & Why?

1) 통일에 대한 우호적 인식 약화

우리는 통일을 원하는가? 모든 당위가 사라지다?

어떤 통일인가? 통일의 위협이 부상하다?

개인의 선호와 삶의 방식에 도전하는 통일이라면?

..... from. MZ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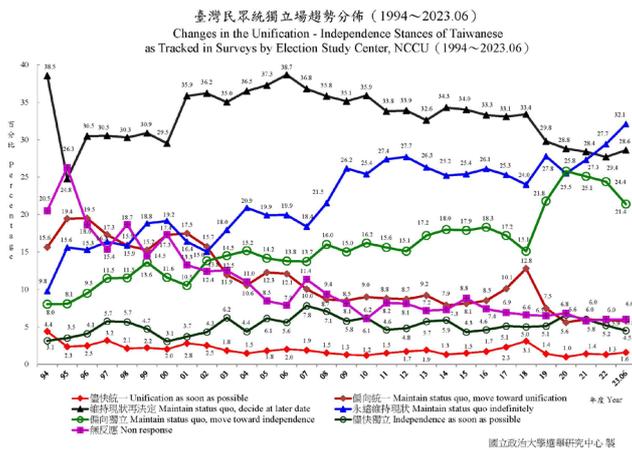
⇒ 통일 인식 제고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설득과 교육의 문제인가?

지정학적 위협 완화 등 대외환경은 의미있는 요소일까?

1) 대만 사례의 시사점

- 대만의 통일인식: "영원한 현상유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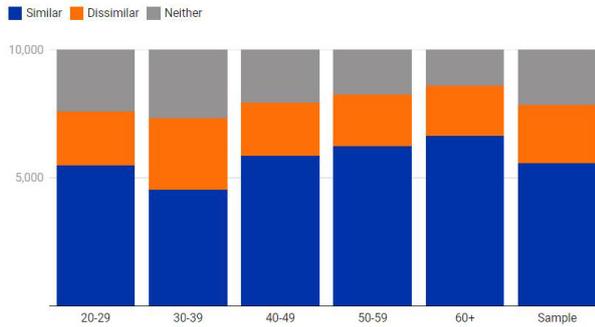
<그래프> 대만인의 통일과 독립에 대한 인식 분석 (1994~2023.06)



- 대만의 중국 선호도 원인 : 정치체제의 지배적 영향
 - 대만인 정체성의 강력한 요소; 문화에 대한 거부가 아닌 정치체제에 대한 거부
 - "중국 아닌 대만인" 자유민주주의 요소; 중국의 권위주의화와 강경외교 배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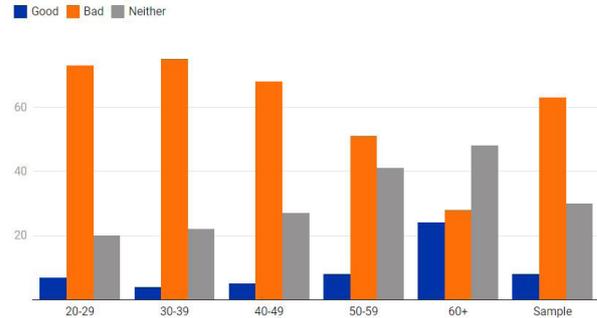
<대만인의 중국 인식 : 문화 VS. 정치>

Taiwan's culture and China's culture are...



Source: Authors survey, May 2021 · Get the data · Created with Datawrapper

How do you appraise the PRC government?



Source: Authors survey, May 2021 · Get the data · Created with Datawrapper

- 연령별 통일, 북한, 탈북민 인식 : 코호트 효과 VS. 세대효과 ?

2. 무엇을 의미하는가?

- 1) 통일의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한 인식의 하락 - 다시 교육인가?
- 2) '나' 중심, 개인주의의 부상 - 통일의 영향에 대한 국가narratives vs. 개인narratives
- 3) 정체성의 충돌, 정치체제의 충돌 - 이질화의 심화
- 4) 인식과 관점의 세계화 - 민족주의적 접근 ?
- 5) 리더십에 대한 신뢰? 우리의 정체성과 이익은 보호받을 수 있는가?

3. 왜 변화하는가?

- 개인.사회의 변화, 대외환경의 변화 (민주주의 vs. 권위주의, 블록화, 북중러 협력 등) 북한의 변화 등

4. 생각해 봐야 할 것

- 1) 목표지향적 통일담론은 지속가능한가?
- 2) why에 대한 질문 : 변화의 이유에 중점을 둔 설문 보완
 - ex) 왜 가깝다고 느끼는가? (2007년과의 비교)
 - 미국과 친밀도 81.5%가 말하는 것 (2007년에 비해 30%가까운 상승)
 - 북한과의 친밀도 7%가 말하는 것
 - 중국과의 친밀도 2.8%, 러시아 0.6%가 말하는 것
 - ex) 왜 위협인가? 북한 45.8%, 중국 36.8%, 러시아 4.6%. 미국 4.5%, 일본 8.3%
- 3) 주변국 조사의 목표는 ? 통일에 대한 도움과 선호도는 같이 움직여 왔는가?
 - ex) 북중 협력 우려 90.6%, 중국 경계 51.6%; 한반도 전쟁시 미국의 지원 71.3%, 일본 17.3%
 - 중국의 대북지원 55.8%, 러시아 32.8%; 통일바라지 않는 국가 91.9% 중국, 러시아 90.3%
- 4) 대안과 전략은 무엇인가? 무엇이 북한으로부터, 통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가?
 - 이질화의 심화와 다름에 대한 위협 인식 분석, 한국의 정체성과 통일의 정체성 ?



● 한미관계 인식에 대한 분석

이성우

한미관계인식에 대한 분석 (요약문)

이성우 (한국문화관광연구원)

한미관계인식을 중심으로 통일, 북한, 주변국인식 등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한국인들은 미국에 대하여 주변국들 중에서 미국을 가장 친밀하게 인식하고, 전쟁 발생 시 한국을 도울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한국인들은 한국이 통일을 이루려면 가장 협력해야 하지만, 미국이 한반도 통일을 원하지 않을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한국인들은 전반적으로 주변국들 중에서 미국에 대하여 가장 친숙하고, 믿을 수 있는 국가로 인식하고 있으며 통일을 위해서 미국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인식하지만, 한반도 통일문제에 대한 미국의 태도에 대해서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통일, 북한 관련 인식을 중심으로 한미관계 인식에 대한 영향요인을 분석하였다. 우선, 통일이 필요하다고 인식할수록 미국이 통일을 희망하고, 한반도 통일에 협조할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

북한에 대한 인식에서는 북한이 대화가능하다고 인식할수록 미국친밀감과 미국의 통일 협조 필요성은 낮아진다. 북한을 대화가능 대상으로 인식할수록 미국이 통일을 희망할 것이라고 인식한다.

한국핵무장 문제와의 관계에서는 한국의 핵무장을 찬성할수록 미국친밀감과 미국의 통일 협조 필요하다는 인식하며, 미국이 통일을 희망할 것이라는 인식은 낮아진다. 한국인들은 한국의 핵무장 문제가 전반적으로 미국과의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인식하지 않는다.

한반도 문제에 대한 중국의 개입 문제에 대해서는 북한과 중국의 협력에 대하여 우려할수록 미국이 통일을 희망하고, 한반도 통일에 협조할 것으로 인식한다. 이 결과는 한국인들이 미국이 중국에 대한 경계를 분명히 할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다음으로 한미관계인식의 변화가 한국정부의 대북정책 인식, 대일본, 대중국인식에 미친 영향에 대한 분석을 한다.

우선 미국 친밀감이 높을수록 대중국인식은 부정적인 인식이 커진다. 미중관계인식이 정확히 반영되어있다. 그리고 통일에 미국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생각할수록 대일본인식은 긍정적으로 변화한다. 미국의 역할에 일본의 역할도 함께 할 수 있음을 일정하게 인식하고 있음을 추정해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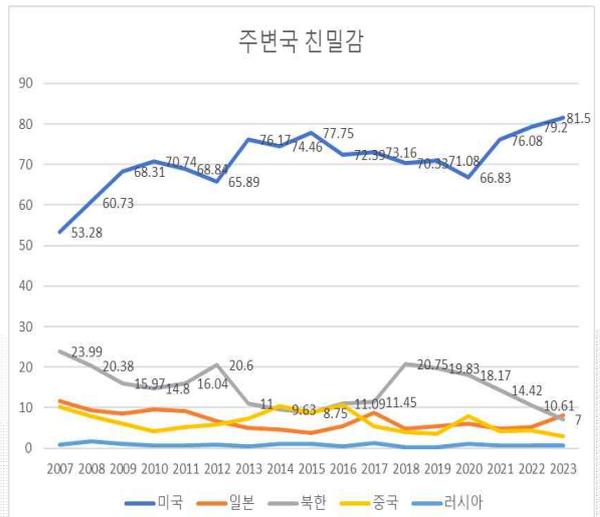
한편, 미국이 통일을 희망한다고 인식할수록 한국정부의 대북정책만족도 높다. 한국정부의 대북정책에 있어 미국의 역할을 끌어내는 것도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으로 추정해볼 수 있다. 흥미로운 점은 통일에 미국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생각할수록 대북정책만족도가 낮게 나왔다는 점이다. 미국의 역할을 기대하지만, 한국정부의 역할이 주도적이지 않을 수 있다는 점에 대한 경계 인식이 일정하게 있는 것으로 추정해볼 수 있다. 미국역할 인식과 한국정부의 대북정책 인식에 대한 세밀한 추가분석이 필요하다.

추가로 대북정책 목적에 대한 관계를 분석하였다. 미국이 통일을 희망한다고 생각할수록 대북정책의 목적이 북한의 개혁개방이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강하다. 미국의 통일협조 필요하다고 인식할수록 대북정책의 목적은 평화공존으로 인식하며, 북핵위협인식이 클수록 대북정책목적은 평화공존이어야 한다고 인식한다. 미국의 힘과 함께 북한의 개혁개방을 끌어낼 수 있다면 좋겠지만, 현재 상황에서 대북정책의 목적은 평화공존이라는 인식이 강함을 추정해볼 수 있다.

한미관계인식에 대한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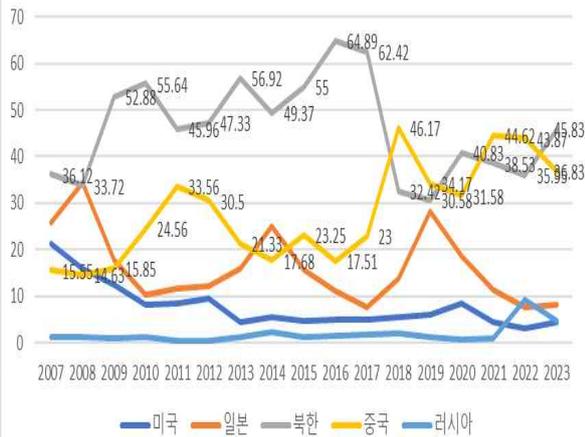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이성우 부연구위원

미국에 대한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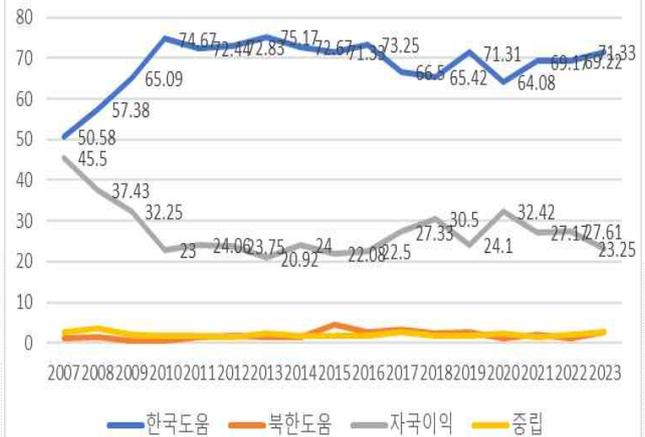


미국에 대한 인식

평화위협국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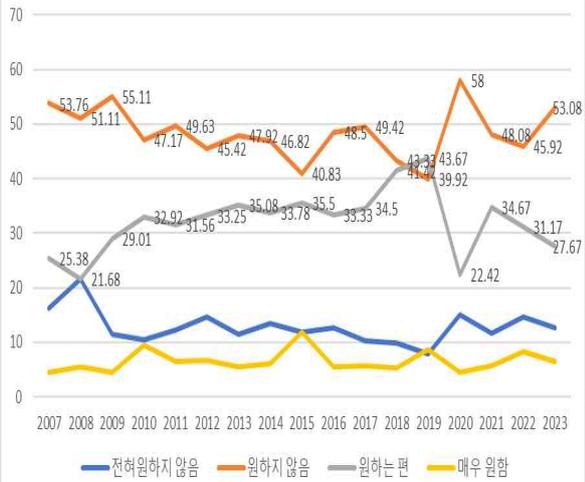


전쟁대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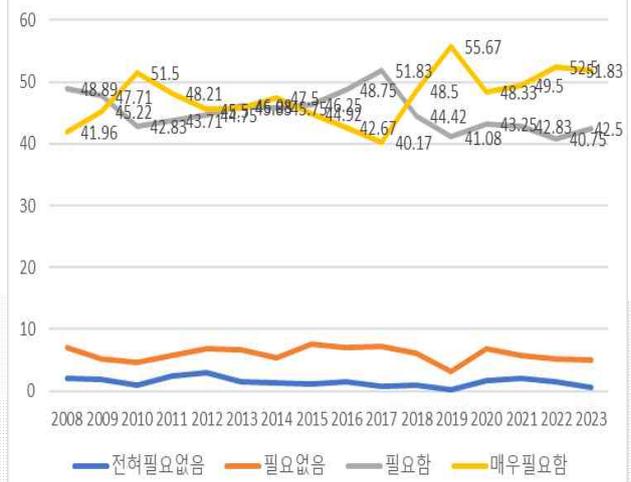


미국에 대한 인식

미국의 통일희망



미국의 통일협조필요



대북인식/통일인식과 대미인식

북한무력도발가능성과 미국친밀감

	미국친밀감 없음	미국친밀감 있음
북한무력도발가능성 전혀없음	35.88	64.12
북한무력도발가능성 없음	30.24	69.76
북한무력도발가능성 있음	28.5	71.5
북한무력도발가능성 매우있음	26.03	73.97

통일필요성과 미국친밀감

	미국친밀감 없음	미국친밀감 있음
통일필요전혀없음	14.21	85.79
통일필요거의없음	17.29	82.71
보통	21.99	78.01
통일필요	21.94	78.06
통일매우필요	26.1	73.9

미국에 대한 인식

- 주변국 중 가장 친밀하고, 전쟁발생시 한국을 도울 것으로 믿고 있음
- 한국이 통일을 이루려면 가장 협력해야하지만, 한반도 통일을 원하지 않을 것으로 인식
- 대북인식과 통일인식과 미국에 대한 인식이 연관되어있음

한미관계인식에 대한 영향요인

한미관계인식 세가지 :

- 미국 친밀감 - 미국에 대한 감정적 인식
- 미국 통일희망 - 미국의 태도에 대한 인식
- 미국 통일 협조필요성 - 미국의 역량에 대한 인식

영향요인 :

- 통일인식 - 통일필요성, 통일시기
- 북한인식 - 북한 대화가능성, 북한 무력도발가능성, 북핵위협인식
- 한국인식 - 한국핵무장인식
- 중국인식 - 북중협력인식, 중국부상인식

통제요인 : 당파성(진보), 성별, 세대, 교육수준, 소득, 주관적 계층인식

한미관계인식에 대한 영향요인

	미국친밀감	미국통일희망	미국통일협조필요성
통일필요성인식 (5 매우필요)	-0.105 (0.0548)	0.105* (0.0420)	0.152*** (0.0445)
통일시기 (6-불가능)	0.00757 (0.0426)	-0.0147 (0.0337)	-0.0746* (0.0357)
북한대화가능성 (4-매우가능)	-0.290*** (0.0780)	0.186** (0.0616)	-0.237*** (0.0647)
북한무력도발가능성 (4-많이 있다)	-0.134 (0.0706)	0.200*** (0.0555)	-0.0783 (0.0575)
북핵위협인식 (4-매우위협)	0.0951 (0.0788)	0.0797 (0.0620)	0.148* (0.0650)
한국핵무장인식 (5-매우찬성)	0.159*** (0.0462)	-0.0752* (0.0366)	0.292*** (0.0390)
북한중국협력인식 (4-매우우려)	0.0531 (0.0853)	0.135* (0.0681)	0.370*** (0.0711)

한미관계인식에 대한 영향요인(odds ratio)

	미국친밀감	미국통일희망	미국통일협조필요성
통일필요성인식 (5-매우필요)	0.900	1.11	1.16
통일시기 (6-불가능)	1.00	0.98	0.92
북한대화가능성 (4-매우가능)	0.74	1.20	0.78
북한무력도발가능성 (4-많이 있다)	0.87	1.22	0.92
북핵위협인식 (4-매우위협)	1.09	1.08	1.15
한국핵무장인식 (5-매우찬성)	1.17	0.92	1.33
북한중국협력인식 (4-매우우려)	1.05	1.14	1.44
중국부상인식 (4-매우도움)	0.88	1.30	0.92

미국에 대한 인식

- 통일 필요 ↑ → 미국의 한반도 통일희망, 협조필요 인식 ↑
- 북한과 대화가능성 ↑ → 미국친밀감, 미국의 통일협조 필요 ↓, 미국의 통일희망 ↑
- 한국의 핵무장 ↑ → 미국친밀감, 미국의 통일협조 필요성 ↑, 미국의 통일희망 ↓
- 북한과중국의 협력에 대한 우려 ↑ → 미국의 통일희망, 미국의 통일협조 필요 ↑
- 오즈 값 변동 : 미국관련인식에 영향변수 - 북한핵위협인식, 북한중국협력인식

한미관계인식의 영향 분석

종속변수 : 대북정책만족도, 대일본인식, 대중국인식, 대북정책목적(평화 통일, 평화공존, 북한개혁개방)

한미관계인식 세가지 :

미국 친밀감 - 미국에 대한 감정적 인식

미국 통일희망 - 미국의 태도에 대한 인식

미국 통일 협조필요성 - 미국의 역량에 대한 인식

한미관계인식의 영향 분석

	대북정책만족도	대일본인식	대중국인식
미국친밀감 (1- 친밀)	-0.142 (0.0947)	0.0752 (0.0939)	0.480*** (0.0949)
미국통일희망 (4- 매우원함)	0.236*** (0.0514)	-0.0972 (0.0496)	0.0126 (0.0500)
미국통일협조필요성 (4- 매우필요)	-0.239*** (0.0596)	-0.194*** (0.0583)	-0.0540 (0.0598)
통일필요성인식 (5 매우필요)	0.249*** (0.0422)	0.136*** (0.0400)	-0.0699 (0.0410)
통일시기 (1-5년이내 ~6-불가능)	0.0112 (0.0336)	0.0767* (0.0330)	0.0246 (0.0332)
북한무력도발가능성 (4- 많이 있다)	-0.192*** (0.0559)	-0.0250 (0.0538)	0.203*** (0.0549)
북핵위협인식 (4- 매우위협)	0.111 (0.0623)	-0.119* (0.0603)	-0.131* (0.0613)

한미관계인식의 영향(odds ratio)

	대북정책만족도	대일본인식	대중국인식
미국친밀감 (1- 친밀)	0.867	1.078	1.615
미국통일희망 (4- 매우원함)	1.265	0.907	1.012
미국통일협조필요성 (4- 매우필요)	0.787	0.823	0.947
통일필요성인식 (5 매우필요)	1.282	1.145	0.932
통일시기 (1-5년이내 ~6-불가능)	1.011	1.079	1.024
북한무력도발가능성 (4- 많이 있다)	0.825	0.975	1.225
북핵위협인식 (4- 매우위협)	1.117	0.887	0.877

한미관계인식의 영향요인(대북정책목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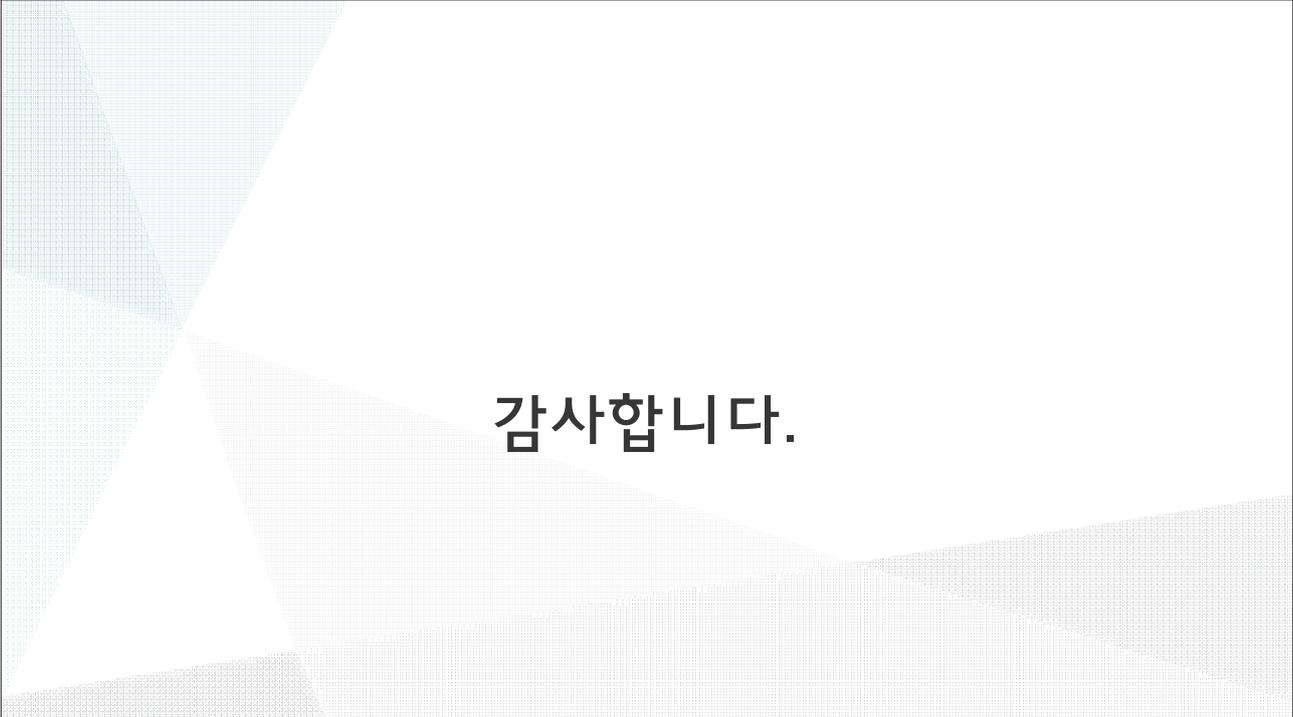
	평화통일	평화공존	개혁개방
미국친밀감 (1- 친밀)	-2.245 (1.764)	0.0879 (0.102)	-0.0287 (0.121)
미국통일희망 (4- 매우원함)	0.0609 (1.026)	-0.260*** (0.0549)	0.156* (0.0642)
미국통일협조필요성 (4- 매우필요)	-	0.182** (0.0635)	-0.0105 (0.0745)
통일필요성인식 (5 매우필요)	-0.314 (0.966)	-0.0756 (0.0446)	-0.0995 (0.0518)
통일시기 (1-5년이내 ~6-불가능)	-0.695 (0.716)	0.00253 (0.0360)	0.0807 (0.0430)
북한무력도발가능성 (4- 많이 있다)	0.410 (1.028)	-0.0560 (0.0593)	-0.0263 (0.0690)
북핵위협인식 (4- 매우위협)	1.420 (1.424)	0.133* (0.0661)	-0.0593 (0.0767)

한미관계인식의 영향요인(대북정책목적_odds ratio)

	평화통일	평화공존	개혁개방
미국친밀감 (1- 친밀)	0.105	1.091	0.971
미국통일희망 (4- 매우원함)	1.062	0.770	1.168
미국통일협조필요성 (4- 매우필요)	-	1.199	0.989
통일필요성인식 (5 매우필요)	0.730	0.927	0.905
통일시기 (1-5년이내 ~6-불가능)	0.499	1.00	1.084
북한무력도발가능성 (4-많이 있다)	1.507	0.945	0.974
북핵위협인식 (4- 매우위협)	4.138	1.142	0.942

한미관계 인식의 영향

- 미국 친밀감 ↑ → 대중국인식 ↓
- 미국 통일 희망 ↑ → 대북정책만족도 ↑
- 통일 미국 협조 필요 ↑ → 대북정책만족도 ↓, 대일본인식 ↑
- 통일 필요 ↑ → 대북정책만족도 ↑, 대일본인식 ↑
- 미국 통일 희망 ↑ → 대북정책 목적은 북한의 개혁개방
- 미국 통일협조 필요 ↑ → 대북정책 목적은 평화공존
- 북핵위협인식 ↑ → 대북정책목적은 평화공존



감사합니다.



● **청년세대가 보는 통일
: 변화와 미래**

김성희

청년세대가 보는 통일: 변화와 미래 (요약문)

김성희 (전북대학교)

- MZ세대의 부정적 통일의식이 최근 몇 년 동안 심화되는 추세가 관찰됨
 - 통일의 필요성(2023년 기준 MZ세대 응답자 중 30.6%) 및 시급성(9.2%)을 다른 세대보다 덜 인식함
 - 통일에 대한 무관심(16.0%), 현상태 선호(36.1%)가 다른 세대보다 더 강함
 - 통일에 대한 가능성 낮게 인식함(30년 이상 전망 31.2%, 불가능 전망 37.7%)
- 다른 세대보다 통일에 대한 선호 자체가 낮다고 판단됨
 - 통일의식이 가장 높던 2018년에도 통일의 필요성을 다른 세대보다 낮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었음
- 통일을 해야한다면 "같은 민족이니까"(22.8%) 보다 "전쟁위험을 제거하기 위해" (40.6%) 통일을 지지함
- 통일의 이익을 보는 관점은 개인보다 국가차원에서의 이익을 높게 평가함
- 통일의식이 근래 중 가장 높았던 2018년과 2023년의 결정요인을 비교하여 계수값을 그래프로 나타낸 결과, 다음과 같은 결과를 발견함
 - 경제력이 높을수록(전문/관리직 및 소득 200만원 이상의 경우) 통일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강함
 - 정치성향과의 상관관계의 양상이 변화됨(2018년: 정치성향간 차이 유의하지 않음 → 2023년: 중도 VS. 진보/보수)
 - 현상태선호는 결정요인이 뚜렷하지 않음
 - 세대 내 동질성, 즉, MZ세대라면 경제사회학적 요인과 관계없이 현상태를 선호하는 경향이 강함
- 향후 남북관계 경색이 지속되면 앞으로도 부정적 통일의식은 심화될 가능성이 높음
- 통일을 실리적인 이유로 지지하는 경향이 심화되나, 실제 통일을 지지한다고 보기는 어려움
 - 통일이 필요없다고 밝힐수록 이러한 경향이 강함
 - 실리는 개인보다 국가적 차원으로 보는 경향이 지속됨
 - "통일로 인해 (국가적) 이익이 예상되더라도 통일을 지지하지 않는다"라는 견해로 볼 수 있음
 - 현상태선호의 비중이 통일을 지지하는 비중보다 상황에서 통일에 대한 접근 방식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

청년세대가 보는 통일 : 변화와 미래

2023 통일의식조사 심화분석

김성희 (전북대학교)

세대분류

* 청년세대: "MZ세대"로 정의하고 분석을 시행함

구분	출생연도	특징
1차 베이비부머 세대	1955~1964년	고령자편입 본격화
2차 베이비부머 세대	1965~1974년	정년 연장 혜택
X세대	1975~1984년생	중간관리자, 윗세대 관행 거부
밀레니얼 세대	1985~1996년생	대학진학을 최정점, 사회진출 가속
Z세대	1997~2010년대 초반	초저출산 시기

청년(MZ)세대의 통일의식 요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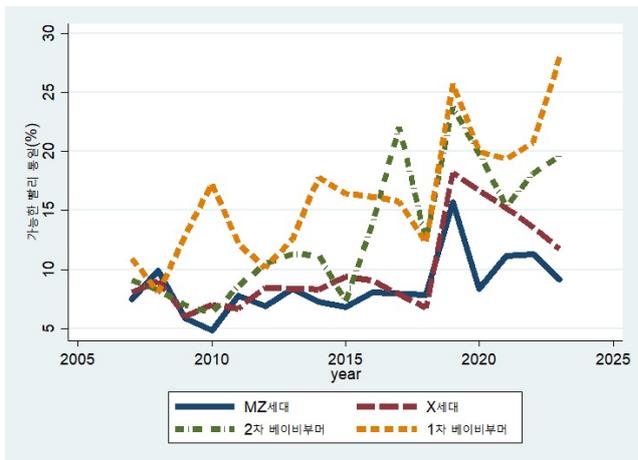
- 부정적 통일의식이 최근 몇 년 동안 심화되는 추세가 관찰됨
 - 통일의 필요성, 시급성 다른 세대보다 덜 인식함
 - 통일에 대한 무관심, 현상태 선호 다른 세대보다 더 선호
 - 통일에 대한 가능성 낮게 인식함
- 다른 세대보다 통일에 대한 선호 자체가 낮다고 판단됨
 - 통일의식이 가장 높던 2018년에도 통일의 필요성을 다른 세대보다 낮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었음
- 통일을 해야한다면 “같은 민족이니까” 보다 “전쟁위험을 제거하기 위해” 통일을 지지함
- 통일의 이익을 보는 관점은 개인보다 국가차원에서의 이익을 높게 평가

세대별 통일의식: 통일의 필요성 및 시급성

“통일이 필요하다”



“가능한 빨리/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통일이 필요하다”



세대별 통일의식: 현상태선호 및 무관심

“현재대로가 좋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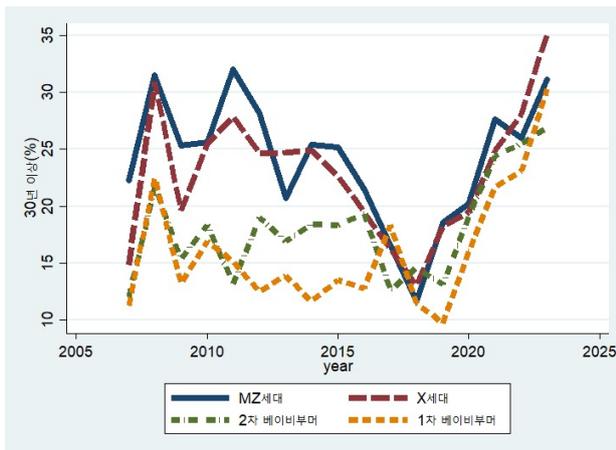


“관심이 별로 없다”



세대별 통일의식: 통일 가능성

“30년 이상 걸릴 것”



“불가능할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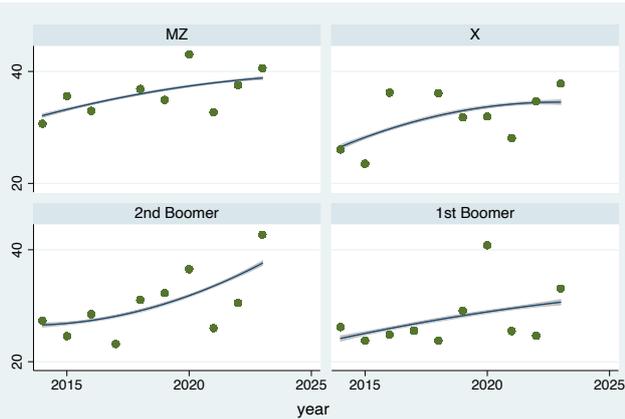


통일의 이유: 같은 민족이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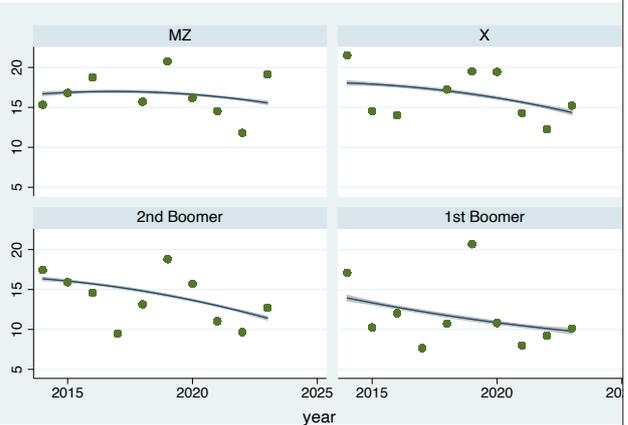
- MZ세대의 23%만이 같은 민족이니까 통일해야 한다고 응답 (2023년)
- 다른 보기("전쟁위협 제거하기 위해", "한국이 보다 선진국이 되기 위해", "북한주민도 잘 살 수 있도록", "이산가족의 고통을 해결해주기 위해")에 비해 세대 차이가 큼



남북간 전쟁위협 제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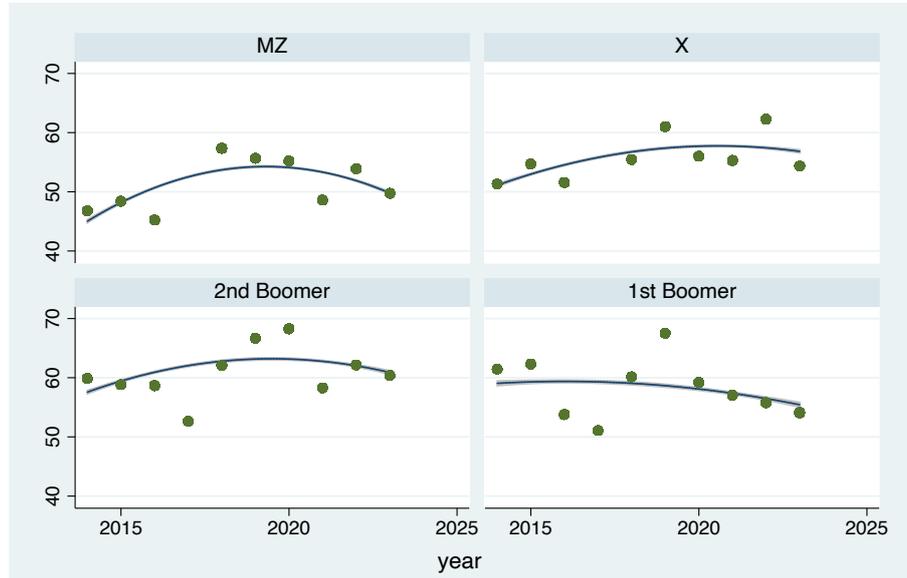
선진국이 되기 위해



MZ세대: 선진국이 되기 위해 통일해야 한다는 응답 비중 급등 (2023년)
 통일이 필요없다고 응답한 사람 중 12% (2018년) → 21% (2023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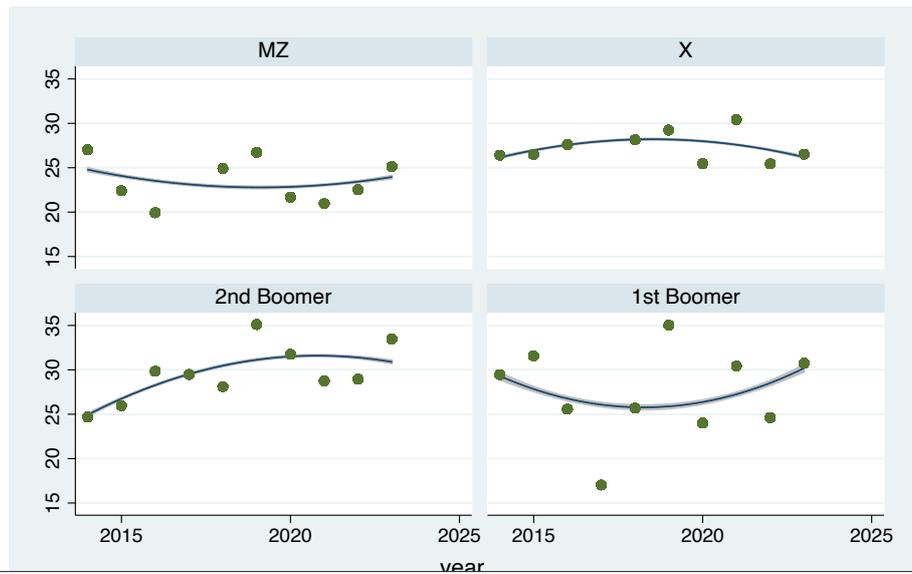
세대별 응답비율: 통일이 국가에게 이익

- 통일이 국가에게 이익이 될 것이라고 응답: MZ세대 50%로 다른 세대보다 소폭 낮음 (2023년)



세대별 응답비율: 통일이 자신에게 이익

- 통일이 자신에게 이익이 될 것이라고 응답: MZ세대 25%로 X세대와 비슷 (2023년)



MZ세대의 통일의식 결정요인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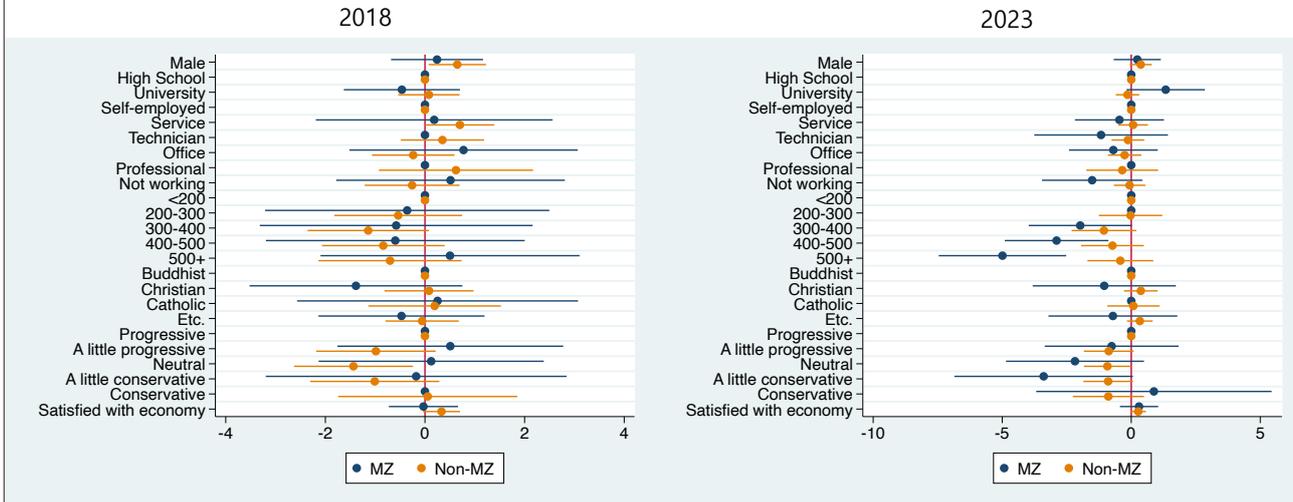
- 통일의식이 근래 중 가장 높았던 2018년과 2023년의 결정요인을 비교하여 계수값을 그래프로 나타냄
- 통제변수
 - 성별, 결혼상태(결과생략), 거주지역(결과생략)
 - 교육수준
 - 월소득
 - 직업
 - 종교
 - 정치성향
 - 한국경제에 대한 만족도 ← 국가 경제에 대한 관점과 밀접할 것이라 예상되어 선정
- 타세대의 결정요인과 비교

통일의식의 결정요인: 2018 vs. 20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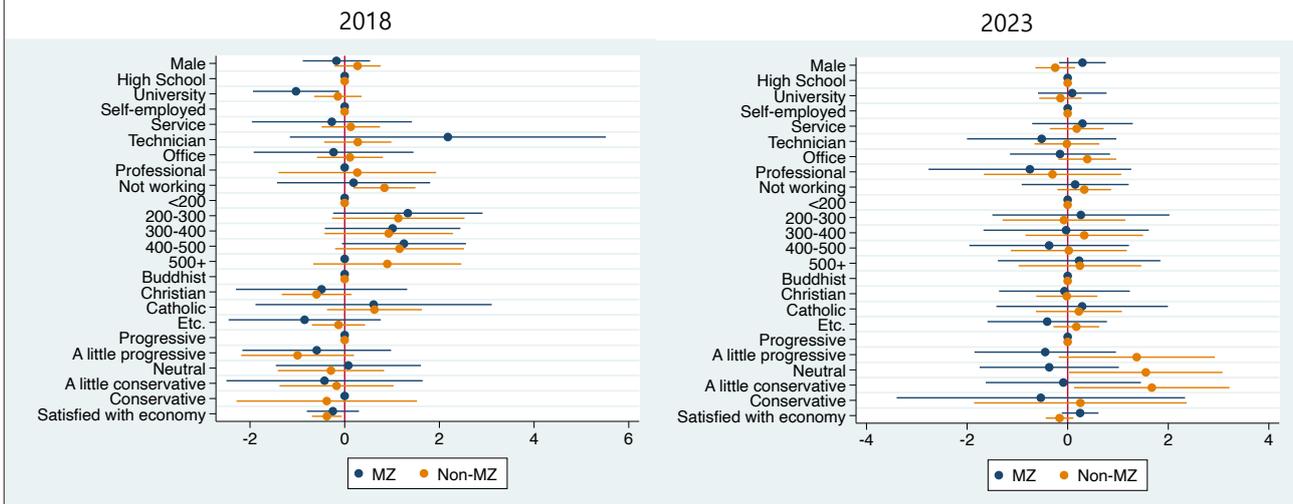
*계수값이 클수록 통일의 필요성에 부정적임. 수평선은 95% 신뢰구간을 의미함.

통일의식의 결정요인: 2018 vs. 2023



*계수값이 클수록 통일의 시급성에 동의함. 수평선은 95% 신뢰구간을 의미함

통일의식의 결정요인: 2018 vs. 2023



*계수값이 클수록 현상태 선호함. 수평선은 95% 신뢰구간을 의미함.

통일의식 결정요인 변화

- 경제력이 높을수록 통일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심화됨
 - 전문/관리직 및 소득 200만원 이상의 경우, 통일의 필요성을 더 부정적으로 판단
 - 소득 높을수록 시급성에 동의 안 함
- 정치성향과의 상관관계의 양상이 변화됨
 - 정치성향간 차이 유의하지 않음 → 중도 vs. 진보/보수
- 현상태선호는 결정요인이 뚜렷하지 않음
 - 세대 내 동질성, 즉, MZ세대라면 경제사회학적 요인과 관계없이 현상태를 선호하는 경향이 강함
- 윗세대의 경우, 통일의식을 결정짓는 요인을 발견하기 어려움

결론

- 최근 몇 년 간 청년세대의 부정적 통일의식이 심화되고 있음
 - 남북관계 경색이 지속되면 앞으로도 부정적 통일의식은 심화될 가능성이 높음
- 통일을 실리적인 이유로 지지하는 경향이 심화되나, 실제 통일을 지지한다고 보기는 어려움
 - 통일이 필요없다고 밝힐수록 이러한 경향이 강함
 - 실리는 개인보다 국가적 차원으로 보는 경향이 지속됨
 - “통일로 인해 (국가적) 이익이 예상되더라도 통일을 지지하지 않는다”라는 견해로 볼 수 있음
- 현상태선호>통일지지의 상황에서 통일에 대한 접근 방식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
 - “통일의식의 고취”, 실현가능한(현실적인) 것인가?
 - 아니라면 장기적 통일정책의 목표는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



● 토론문

황태연

김희정

“한미관계인식에 대한 분석”에 대한 토론문

황태연 (통일연구원)

먼저,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갖고 있는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의 <통일의식조사> 결과발표회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관계자 선생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통일의식조사>는 ‘통일’과 ‘평화’의 주체인 국민들의 의식을 엿볼 수 있는 가장 기초가 될 수 있는 자료로, 통일 정책 수립과 실천을 위해 연구자들뿐만 아니라 정책 수립과 결정 과정에 있는 관련자들에게도 매우 의미 있는 연구라고 생각합니다.

국제정세는 미중 전략적 경쟁의 강화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은 한미동맹 강화와 가치외교를 중심으로 하는 외교정책 기조 아래 미국과의 동맹 강화 및 일본과의 관계 개선을 추구하고 한미일 협력 강화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으며, 최근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은 러시아를 방문해 푸틴 대통령과 회담하면서 북한의 러시아 전쟁물자 지원과 러시아의 북한에 대한 식량 및 기술 지원 등이 타진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한반도를 중심으로 동북아 주변 국가들은 한미일과 북중러의 대립 구도가 심화되는 현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미관계인식에 대한 분석>은 주변국에 대한 인식과 태도를 파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한미관계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함으로써 한미관계인식에 내재된 요소들을 깊이 있게 파악하고 향후 정책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기초 자료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있는 분석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미관계인식에 대한 분석>은 <통일의식조사>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미관계인식은 미국에 대한 감정적 인식으로 “어느 국가를 가장 가깝게 느끼나”라는 질문과 같은 미국 친밀감과, 미국의 태도에 대한 인식으로 “미국이 남북한의 통일을 원한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과 같은 미국의 통일희망, 그리고 미국의 역량에 대한 인식으로 “남북한 통일을 위해 미국의 도움이 얼마나 필요하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과 같이 미국의 통일 협조 필요성을 기본 요소로 하고 있다. 여기에 한미관계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통일인식(통일 필요성, 통일 시기)과 북한인식(북한 대화 가능성, 북한 무력도발 가능성, 북핵 위협 인식), 그리고 한국인식(한국 핵무장 인식) 및 중국인식(북중 협력 인식, 중국 부상 인식)에 대하여 분석하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결과는 4페이지의 미국의 통일희망 그래프를 보면 미국이 한반도 통일을 원하지 않는다는 수치가 작년보다 증가하였고, 원한다는 수치는 감소하는 상황에서 분석 결과는 북한을 대화가능 대상으로 인식할수록 미국이 통일을 희망할 것이라고 인식한다는 것입니다. 즉, 지금 남북관계가 대화 및 협력이 이뤄지지 않고 있고 한미일 대 북중러 대결 구도가 강화되는 상황에서 국민들이 보기에 미국은 한반도의 통일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흥미로운 또 다른 결과는 한국의 핵무장 문제가 전반적으로 미국과의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인식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국민들의 인식과 다르게 한국의 핵무장 문제는 미국뿐만 아니라 주변국들 모두 반대할 것이라는 사실이며, 국민들의 인식 결과는 오히려 미국에 대해 가장 친숙하고 신뢰하는 국가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한반도 통일문제에 대한 미국의 태도에 대해 의구심을 갖고 있다는 결과와 마찬가지로 모순적이면서도 복합적인 요소들이 작용하고 있어 향후 지속적인 관찰과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5페이지의 통일 필요성과 미국 친밀감에 대한 표를 보면 “통일 필요 전혀 없음”과 “미국 친밀감 있음”의 관계에서 85.79로 가장 높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북한무력도발 가능성 매우 있음”과 “미국 친밀감 있음”이 가장 높은

관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통일이 전혀 필요 없고, 북한의 무력도발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인식하는 국민은 미국에 대한 친밀도가 높다는 사실입니다.

“청년세대가 보는 통일: 변화와 미래”에 대한 토론문

김희정

본단의 기간이 70년을 훌쩍 넘어서면서 후속세대를 위한 통일에 대한 접근과 통일교육의 방향성에 대해 우리 사회의 고민과 문제의식이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김성희 교수님의 『청년세대가 보는 통일: 변화와 미래』에 대한 발표문은 이러한 현세대와 통일에 대한 청년세대의 부정적 인식의 심화를 여실히 보여주는 자료라고 생각합니다. 발표자께서는 특히 MZ세대라 일컫는 10대, 20대의 청년 집단을 세대로 구분하여 분석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연령대별로 주로 이루어졌던 분석과 차별화하여 통일의식의 세대별 분석과 특징을 도출하려는 시도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발표문에 대해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질문과 제안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이 연구의 세대별 분석에 대한 의견입니다. 19세부터 조사가 이루어지는 통일의식조사 표본으로 인해 세대별 분석결과는 분석시점에 따라 매우 적은 연령범위의 M세대만 포함되거나 아예 Z세대가 포함되지 않게 되어 연도별 표본수의 편차가 나타나게 될텐데요, 자료에서 구체적인 통계분석 방법이 없어 제가 제대로 이해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과거 연도에 대한 시계열적 추이를 통해 MZ세대의 특징을 살펴보는 데에는 무리가 있는게 아닌가 합니다. 과거의 추이 결과를 담보하기 위해서는 Z세대를 제외하고 살펴보거나 혹은 Z세대가 데이터에 등장하는 2018년 이후의 추이를 분석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로 인해 2015년 이전까지는 X세대와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 지표들의 원인이 되거나 세대효과를 상쇄하는 결과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 Z세대의 분화현상이 10대와 20대 사이에 관찰된다는 보고도 등장하고 있어 Z세대의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초고, 중등, 고등학생 수치가 더해지면 여기서 분석된 MZ 특징이 희석되거나 혹은 다른 양상을 보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에 통일평화연구원의 통일의식조사와 통일부의 ‘학교 통일교육 실태조사’의 데이터를 공유하여 연령의 연속성 상에서 세대별 혹은 생애주기별 분석이 이뤄지는 방안에 대한 아쉬움이 남고 기관간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둘째, MZ세대의 특징에 대한 의견입니다. MZ세대의 주요 키워드 중 하나는 ‘경제적 자유’이며, 이 세대는 이것을 이루기 위해 예측가능성, 그리고 이를 토대로 한 부동산, 주식 등의 투자에 높은 관심을 보입니다. 이런 특징을 고려해 보면, MZ세대가 통일에 대해 잘 모르기도 해서 ‘통일에 대해 무관심(16.0%)’하고 현상태 선호(36.1%)가 다른 세대보다 더 강한 것이 이해가 됩니다. 이는 MZ세대가 중요하게 여기는 경제적 자유를 달성하는데 있어 자신의 미래 계획을 어그러지게 하거나 혼란 등으로 불확실성을 높이는 단기간 내 통일에 대해 경계하고 그것을 결정짓는데 있어 경제력은 주요한 요인이 될거라는 예측이 가능한데요, 2018년 대비 2023년의 통일의식 결정요인의 변화 요인으로 경제력이 높을수록 통일의 필요성을 더 부정적으로 판단한다고 분석하셨습니다. 그런데 전문/관리직, ‘소득 200만원 이상’을 기준으로 삼으셨는데 소득 200만원 이상이라고 한다면 최저시급을 생각했을 때 소득이 있는 대부분의 사람을 의미해서 이러한 결과가 어떤 차이를 가져오는지 궁금합니다. 통일의 시급성에서는 소득급간에 따라 계수값의 차이가 나타나 MZ세대의 특성을 보여준다고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의 현상을 긍정적으로 이해한다면 청년세대가 현 상태를 선호하고, 30년 이상 통일이 걸릴 것으로 가정했다는 답변이 높았다면 오히려 장기적 통일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근대화론 인한 개인주의, ‘경제적 자유’로 대별되는 자본 의존과 민주주의의 다원성 등을 고려하면 사실 통일은 국가보다 개인에게 더 이익이 되어야 정상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럼에도 개인보다 국가적 이익이 우선이라는 답변이 과거부터 지금까지 높은 수준을 보이는 것은 여전히

히 민족공동체통일방안(3단계) 또는 정부 주도의 통일정책이라는 자장 안에 MZ세대가 있다는 것이고, 오히려 통일이 개인에게 이익이 된다는 논리가 이 세대에게 미흡한 것은 아닌가, 이 부분들이 좀 더 고려되어야 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통일의 필요성에서 X세대의 통일 필요성의 하락 변화가 심한데(“통일이 필요하다”, “가능한 빨리/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통일이 필요하다”) 이러한 요인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또 다른 질문은 MZ세대의 경우 다른 세대에 비해 2018년과 2023년 모두 크리스찬, 카톨릭이 부정적 인식이 불교, 기타에 비해 높게 나타나는데 이걸 어떻게 읽을 수 있을까요?

셋째, 세대경험에 대한 의견입니다. 통일의식 결정요인 구분에서 통일의식의 최근 격차를 보이는 2018년과 2023년을 비교하셨는데, MZ세대의 부정적 통일의식이 최근 몇 년동안 심화되는 추세에 있어 통제하거나 고려해야 주요 변수가 사회적인 측면에서도 많아서 해당 연도에 세대 특징을 구분 짓게 하는 주요한 세대경험 혹은 사회사건에 대한 발표자의 해석이 궁금합니다. 2018년은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 평창 동계올림픽 등의 남북 화해무드로 인해 통일의식이 가장 높았던 시기였습니다. 당시 남북단일팀 구성을 두고 Z세대에서는 ‘공정’이라는 키워드가 등장했고 민족과 공정이 충돌되는 시점이기도 하였습니다. 한편 2023년은 우크라이나 전쟁, 북중러, 한미일이 나뉘는 신냉전으로 일컫는 국제적 긴장과 3년 이상의 긴 코로나 팬데믹의 영향력이 누적되어 나타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특히 최근 3년간 보이는 통일의식의 급격한 변화는 2018년 화해 무드와 뒤를 이어 2021년부터 시작된 3년간의 세계적 팬데믹 효과로 인해 가장 취약한 계층으로 고려되는 2030 세대의 사회심리적 불안과 부적응이 가져온 결과가 아닌가, 이와 더불어 MZ세대가 개인의 힘으로 변화시키기 어려운 북중러, 한미일의 여러 대외여건들, 북한과의 대화 단절 등의 현상으로 인해 국가적인 차원에서만 접근되는, 개인의 이익과 연결되지 않는 현상을 심화시키고 2018년 화해와 변화에 대한 희망이 우려와 실망으로 급격히 바뀌는 결과를 초래한 것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칼 만하임은 청소년기라는 결정적 시기의 급속한 사회변동과 시대경험이 세대를 가르는 기준이 된다고 했는데, 무엇보다 코로나 팬데믹과, 해당 시기에 가중된 이념, 성별, 불안한 청년고용 갈등 등의 사회제반 환경이 MZ세대에 주는 사회심리적 압박감이 매우 큰 상황입니다. 2030의 자살률 증가가 이 시기 어떤 다른 연령대보다 크며, 결혼률과 출산률 저하, 이혼률 증가 등의 지표도 악화되는 등 각종 사회 지표들은 통일의식 저하 문제의 해답을 다차원적인 사회요인의 영향과 복합적인 지표에 따를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통일의식조사에서 시대 사건을 변수화하지는 못하더라도 통일에 대한 감정과 관련된 문항, 통일 이후 실업이나 투기 문항과 저출산/고령화 개선/실업문제 개선 등 사회문제 해결 관련 문항에서 주요한 결과가 있지는 않았는지, 그것이 MZ세대들의 현상태 선호의 결정요인이 뚜렷하지 않게 나타난 점과 관련이 있는지 후속 연구에서 이루어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MZ세대의 통일의식의 특징과 통일에 대한 방향성을 살펴보기 위해, 우리는 그 이전 세대경험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할 수 있습니다. 2021년 학교통일교육 실태조사 결과 기준, 통일의 필요성 수치는 초등 70%대에서 중등 60%대, 고등 50%대, 대학생 연령으로 가면서 40%대로 하향선을 그립니다. 왜 학교급이 높아질수록 순차적으로 지수가 낮아지는가, 같은 MZ세대이건만, 수치의 격차가 크고 교육이 누적되어 효과가 나타나야 하는데 오히려 더 급격하게 낮아지는가입니다. 서울대를 포함하여 우리 주변 대학생들을 둘러보면, 입시를 준비하는 시기부터 북한과 통일을 생각해볼 교육의 기회가 매우 축소되고 제한되어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떠한 접근이 필요할까요? 개인적인 의견은 식상할 수 있지만 결국 사회화와 체험이라고 생각합니다. 북한에 대한 접근과 체험이 힘들다면, 국내, 혹은 해외 개도국, 저개발 국가로 나가 나와 전혀 다른 배경의 다른 요구가 있는 사람들과 협력하고 상호 도움을 주는 활동, 국가의 문제와 갈등, 해결방법 그리고 거기서 얻는 나의 이익에 대한 고민을 개인의 차원, 일상적인 차원에서 내재화하는 경험을 해보는 것입니다. 저는 서울대 글로벌사회공헌단에서 학생들이 그런 체험을 통해 내 이웃, 세계시민으로서의 이웃, 더불어 살아가야 할 사람들에 대한 관점과 태도가 변화하고 성장하는 모습을 보며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봅니다. 대학과 사회 통일교육의 지경을 넓히고 확대해 우리 사회가 일관되게 학생들에게 통일을 개인적인 경험으로, 자신의 삶과 통일을 연결 짓는 체험을 제공하는 것, 그러한 정책이 무엇보다 필요한 시점이라 생각합니다. 긴 토론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The Institute for Peace and Unification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